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도서관은 세계와 미래로 열린 창입니다.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어우러져 도서관세상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가꾸는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 이 용 재
공동연구원 : 김 영 기
연구보조원 : 최 진 욱
신 남 희
황 은 주
최 준 화
최 민 련

2007.7.11 ~ 11.7

국립중앙도서관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본 보고서를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11. 7.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용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김영기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최진욱 (울산 북구 기적의 도서관 사서)
신남희 (대구 새벗도서관 관장)
황은주 (원북원부산운영위원회 코디네이터)
최민련 (도서관·독서프로그램 프리랜서)
최준화 (前 부산 연일중학교 사서교사)

요 약 문

1. 연구제목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2.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작은도서관의 개념,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여 선진적 모형을 개발하고, 도서관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종전과 차별화된 운영프로그램을 발굴·개발하여, 국내 도서관인프라 구축,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형성, 지역주민의 정보복지 향상, 독서문화의 생활화, 지역 커뮤니티 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과 특징

이 연구는 국내 도서관운동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살펴보고 종전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시대별 도서관운동의 주요 양상을 조명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주민밀착형 도서관 시스템 및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들의 장점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내 작은도서관 운동의 현단계와 주요 사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작은도서관의 '선진형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진형 모형을 제시하면서, 이 연구는 도서관의 본질적 가치와 기본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요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작은도서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는 물론 선진 국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을 가급적 망라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외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자 대상별로 정리하고 선진국 도서관의 특성화 프로그램과 독서진흥활동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도서관의 본질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장·단점, 주의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을 위해 본 연구팀이 각종 국내외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목적별 특성과 연령대별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4. 연구의 주요 결과

가.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나. 작은도서관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매뉴얼

목차 contents

1부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1) 공공도서관이 가진 한계 3
(2) 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갈구 3
(3) 한국 근현대사의 도서관운동 요인 4
(4) 정부의 작은도서관 건립 및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4
(5)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내용 6

(1)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파악 6
(2) 선진국 주민밀착형 도서관의 운영시스템 현황 벤치마킹 6
(3) 작은도서관의 개념, 기능 및 역할 정립 7
(4) 지역주민 일상 생활권 속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활성화하는 실천적 방안 도출 8
(5) 21세기 한국 사회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개발 8

3. 연구의 방법 9

(1) 연구 방법 개요 9
(2) 주요 단계와 방법 9
(3)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망 구축 방안 모색 10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10

목차

II.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

1. 도서관운동 전사 12

2. 1960-1970년대 12

(1) 1960년대 - 마을문고운동 12

(2) 1970년대 말 - 양서협동조합 운동 13

3. 1980년대 14

(1) 노동도서원 14

(2) 주민도서원 14

4. 1990년대 16

(1) 인표어린이도서관 17

(2) 좋은 책읽기 가족모임 17

(3) 어린이도서연구회 17

5. 2000년 이후 18

6. 시사점 19

III. 선진국 작은도서관에 대한 벤치마킹

1. 주요 사례 21

(1) 미국 21

(2) 일본 22

(3) 덴마크 25

(4) 브라질 26

2. 국내 작은도서관을 위한 시사점 27

(1) 국내 작은도서관의 여건 27

(2) 시사점 29

contents

Ⅳ. 작은도서관의 선진형 모형

1. 선진적 작은도서관의 개념 정립을 위한 기초적 논의 33
2.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34
   (1)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거점 34
   (2)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는 도서관서비스 포인트 기능 38
   (3)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 기능 39
   (4)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의 장 기능 40
   (5) 지역사회에서의 주민의 참여 거점 41
3. 작은도서관의 가치 42
4. 작은도서관의 선진형 모형 48
   (1) 선진형 작은도서관의 기본 요건 48
   (2) 선진형 작은도서관의 미래상 52
5. 선진형 모형 구현을 위한 로드맵 54

2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매뉴얼

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현황과 검토

1. 국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57
   1 대상별 프로그램 리스트 57
   2 작은도서관의 지역별 유형 59
   3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범주 59
2. 국외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현황 62
   1 대상별 프로그램 리스트 62
   2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63

목차

3. 선진국 독서진흥활동의 주요 특성 67
4. 우리나라의 독서운동과 비교할 수 있는 사항 68
5.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명 69
■1 작은도서관의 특징 69
■2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방법 69
6.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의 장단점과 주의점 70
■1 프로그램 운영의 장점 70
■2 프로그램 운영의 단점 70
■3 프로그램 운영의 주의점 70
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목표 71
■1 매뉴얼소개기준 72
■2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목적별 특성 72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연령대별 특성 73

II.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매뉴얼

1. 그림책 포스터 전시회 (대상 : 전체) 75
2. 그림책 원화 전시회 (대상 : 전체) 78
3. 책 속의 보물찾기 (대상 : 전체) 79
4. 코스튬 플레이 (대상 : 전체) 80
5. 소식지 만들기 (대상 : 전체) 81
6. 풀꽃 나들이 (대상 : 전체) 82
7. 북스타트 (대상 : 영아) 83
8. 북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 (대상 : 영유아) 84
9. 엄마랑 아기랑 (대상 : 영아) 85
10. 그림책 읽어주기 (대상 : 유아) 86
11. 표현놀이 (대상 : 유아) 87
12. 유아를 위한 단체 견학 프로그램 (대상 : 유아)

contents

88

13. 그림책 슬라이드 (대상 : 유아, 초등) 90
14. 독서교실 (대상 : 초등) 92
15. 전래놀이교실 (대상 : 초등) 94
16. 어린이 문화공연 (대상 : 어린이) 95
17. 어린이 사서 (대상 : 초등) 95
18. 독서상담 (대상 : 초등, 청소년) 99
19. 사전, 도감 활용법 (대상 : 초등, 청소년) 100
20. 영어독서프로그램 (대상 : 유아, 초등, 청소년) 101
21. 바깥나들이 (대상 : 초등, 청소년) 102
22. 문화답사 (대상 : 초등) 103
23. 지역 역사 체험 활동 (대상 : 청소년) 104
24. 영화감상 및 토론 (대상 : 청소년) 105
25. 작가와의 대화 (대상 : 청소년, 성인) 105
26. 문화기행 (대상 : 청소년, 성인) 106
27. 아빠랑 동화 읽기 (대상 : 성인) 107
28. 시사 독서토론반 (대상 : 성인) 108
29. 여성 독서토론반 (대상 : 성인) 109
30. 지역사 강좌 (대상 : 청소년, 성인) 110
31. 독서교육 강좌 (대상 : 성인) 111
32. 어린이책 읽는 어른 (대상 : 성인) 112
33. 독서치료모임 (대상 : 성인) 113
34.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우리 문화체험 (대상 : 특수계층) 114
35. 이주 노동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 (대상 : 특수계층) 115
36.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 (대상 : 어린이, 노인) 116
37.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우리 동네 이야기 (대상 : 어린이, 노인) 117
38. 할아버지 할머니 풍물 민속 프로그램 (대상 : 노인) 118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진

목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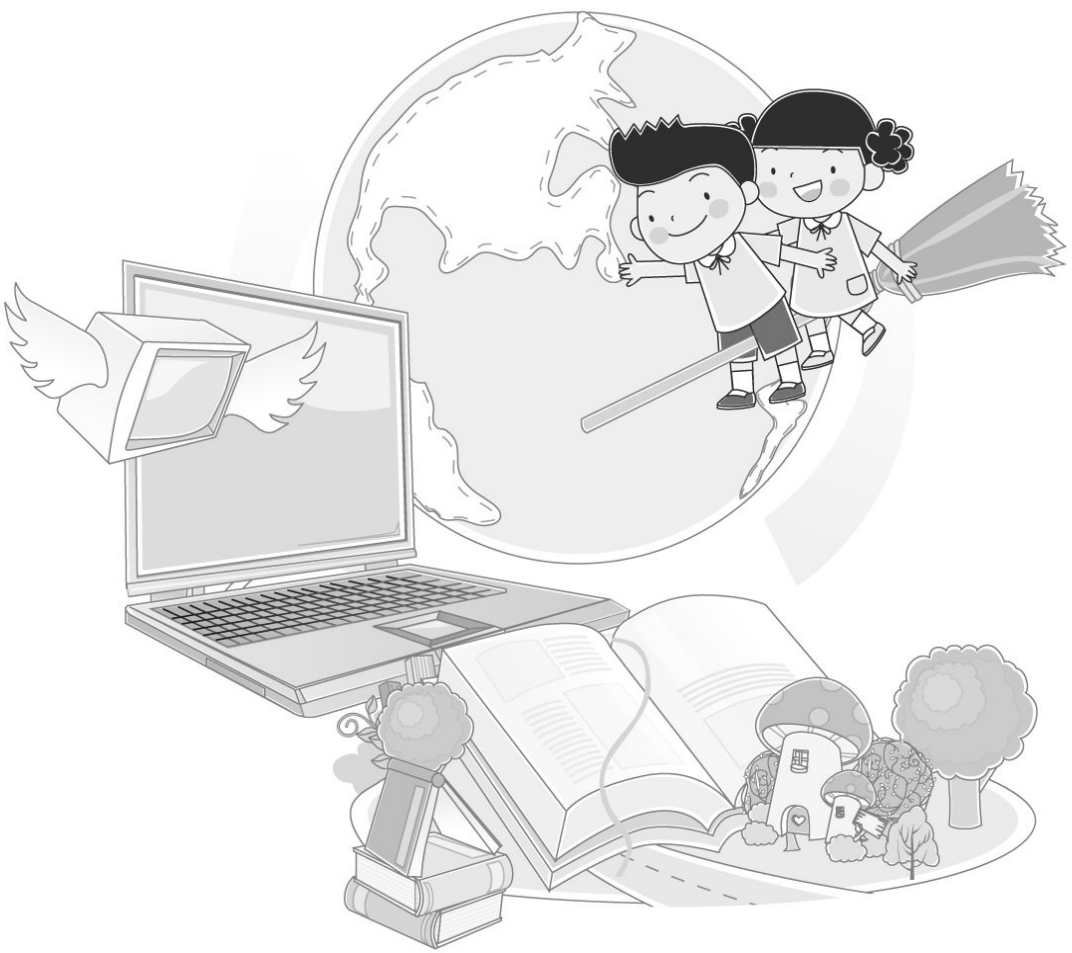
표 차례

<표 1> 미국의 규모별 도서관 봉사권역과 봉사인구 입지기준 21
<표 2> 일본의 도서관 조직망의 서비스 내용 23
<표 3> 전국 등록문고 현황 결과표 27
<표 4> 국내 문고의 운영프로그램 현황 28
<표 5> 국내 문고의 운영주체 현황 29
<표 6> 선진형 작은도서관 개념 정립을 위한 기초적 지침 33
<표 7> 국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역 36
<표 8>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문고로서의 기능 수행 예시 37
<표 9> 선진형 작은도서관의 유형별 모형 예시 38
<표 10> 미국 공공도서관의 주요 서비스 44
<표 11> 부천, 창원, 순천의 작은도서관 인력현황(2006년 9월 현재) 50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목적 5
<그림 2> 연구 내용 요약 8
<그림 3>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운동사 개관 19
<그림 4> 히노도서관의 중앙관 및 분관의 위치도 24
<그림 5> 국내 작은도서관의 인력 운용실태 30
<그림 6>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자체의 실태파악 정도 및 지원계획 수립여부 통계 34
<그림 7> 공공도서관으로의 편입에 대한 의견 39
<그림 8> 국내 작은도서관의 의의와 문제점 46
<그림 9>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에 관한 통계자료 47
<그림 10> 1974년 일본의 도쿄 스기나미구의 「도서관까지의 거리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의 연구결과 48
<그림 11> 광진정보도서관의 도서관의 친구 활동 49
<그림 12> 국내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편목프로그램 비교 51
<그림 13> 선진형 작은도서관 운영시스템 모형 예시도 52
<그림 14> 작은도서관의 선진형 모형을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 54

1부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공공도서관이 가진 한계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편하게 찾아가서 독서를 하고, 정보를 얻고, 각종 문화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이 주로 각자의 책을 가지고 시험을 위한 암기공부를 하는 거대한 독서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라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한 소통과 열림의 공간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도서관이 사람들의 일상과 생활공간에 가까이 있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12월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은 564개관으로 특히 3,517개 읍·면·동 가운데 공공도서관이 설치된 지역은 14.6%에 지나지 않으며 대체로 구·군단위로 1~2개관정도가 설립되어 있어, 모든 지역 주민이 도서관에 찾아가서 '도서관 혜택'을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도서관이 사람들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경우 도서관 이용률은 매우 떨어진다. 선진국과 달리,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편하게 찾아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지역주민 일상생활권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국내의 현실인 것이다.

(2) 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갈구

지난 수십 년간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결핍으로 민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도서관운동이 전개되었다. 1960~70년대 마을문고 운동에서부터 1980년대 도서원 운동을 거쳐 최근의 사립문고, 어린이도서관 건립 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인과 단체가 도서관을 민간 차원에서 만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을 가꾸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적극 나서서 수행한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여러 곳에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었으며, 어린이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설립 취지가 우리 국민 사이에 비교적 넓게 인식되었다.

이 모든 것은 독서실이 아닌 진정한 '도서관'을 우리 국민이 갈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3) 한국 근현대사의 도서관운동 요인

한국 근현대사에서 도서관운동은 민간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대한제국 시대에서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민간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운동이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대한제국 시기 평양의 유지들과 지식인이 세운 '대동서관', 일제강점기에 윤익선과 이범승이 세운 '경성도서관', 해방 이후 엄대섭이 일생을 바쳐 전개한 '마을문고' 운동, 1970년대 말 부산지역 양서협동조합의 지식공동체 운동, 1980년대 부산의 '노동도서원', 마산의 '책사랑', 서울의 '난곡주민도서실' 등과 같은 민간도서관, 1990년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어린이도서관 운동 등이 있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도서관운동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도서관운동가들은 부족한 자금과 인력 문제를 극복하고 도서관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외세나 관에서 세운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식,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지도층이나 지역 주민 스스로 진정한 의미의 도서관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으며, 나아가 도서관 설립자들이나 뜻을 모은 지역주민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도서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지역주민 생활권 속에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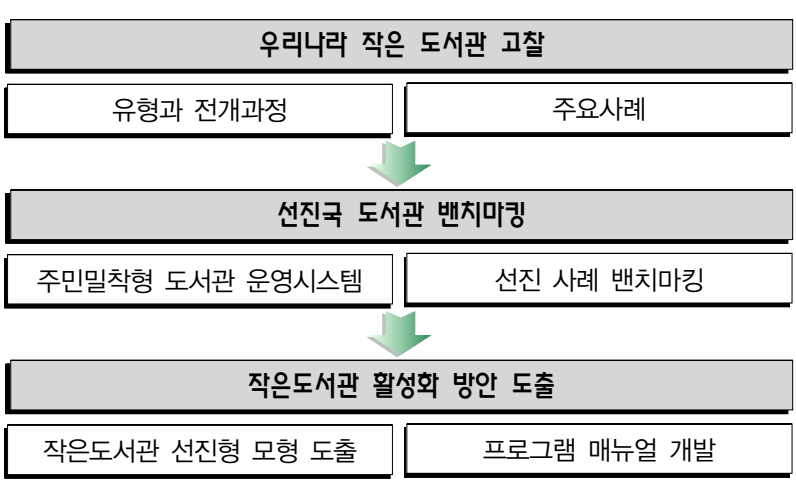
(4) 정부의 작은도서관 건립 및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2004년 6월 문화관광부가 「문화비전21 : 창의한국」에서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1만개 작은도서관 운동'을 제시한 이래 2005년 10월 「국립중앙도서관 2010」에서 저비용·고효율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2006년 1월에는 마을 단위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문화관광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정책과제로 지정되었고, 2006년 2월에는 대통령 보고로서 '작은도서관 운동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 점검 보고'가 제출되었다. 2006년 11월에는 학술용역의 결과로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연구」가, 12월에는 「작은도서관(문고 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가 발표되었다. 2007년 11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에서 7권의 작은도서관 총서를 발행하여 작은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학계에서도 작은도서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작은도서관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대를 낳고 있다.

(5)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도서관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도서관 인프라 및 주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1세기 한국 사회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과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1)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파악

먼저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운동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국내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특히, 현단계 작은도서관 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양서협동조합과 어린이도서연구회의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어느 연구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명을 포함하여 역사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작은도서관의 유형, 주요 사례,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여러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다. 그 중에는 민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헌신적 노력으로 운영되는 사례, 지역사회 지도자층이 합심하고 주민의 협력과 자원봉사를 받아 운영하는 사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관민 협력 모델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작은도서관' 유형 가운데 주요 사례를 발굴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된 연구 대상으로 전국 각지 사립 도서관 및 문고, 주민자치센터문고 및 새마을문고, 어린이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등이며, 주요 사례로는 부천 작은도서관, 순천 작은도서관, 대구 새벗 도서관, 용인 느티나무도서관, 울산 북구 권역별도서관, 창원 마을도서관, 전국의 '기적의 도서관' 등이다.

(2) 선진국 주민밀착형 도서관의 운영시스템 현황 벤치마킹

프랑스혁명으로 비롯된 서구 시민사회 의식의 성장은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를 가져왔으며, 미국의 독립전쟁은 미국사회에서의 지식정보의 대중적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위한 주요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1900년대 초 재벌 카네기의 지원에 의해 건립된 미국과 영국의 공공도서관 사례와 현재 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는 빌게이츠의 활동도 좋은 참조거리이다. 이외에도 도서관 분관시스템이 잘 정착된 일본의 공공도서관, 국가적

으로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잘 구축된 덴마크, '지혜의 등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가까이 연계하고 있는 브라질 꾸리찌바시 사례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주민밀착형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 벤치마킹 대상에는 아래와 같은 범주가 해당된다.

- ○ 선진국에서 역사적·사회적·법적으로 토대를 가지고 도서관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가지는 사례
- ○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에게 밀착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사례
- ○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서 브랜드가 될 정도로 '주민의 대학'이 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사례
- ○ 작은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지역사회에서 구축하고 도서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이동도서관이 운영되며 주민들의 정보·문화·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는 사례
- ○ 정보에 소외된 지역에서 인간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사례
- ○ 빈민, 장애인, 노약자 등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이 건립되고 운영되는 성공 사례
- ○ 정보격차(information gap) 및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현상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모델이 된 사례

(3) 작은도서관의 개념, 기능 및 역할 정립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작은도서관'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팀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 시각은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연계 또는 확대 선상에서 파악하고,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기능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국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수년간의 단기적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고, 예산 낭비 없이 지속적으로 국가의 정보·문화·교육 인프라인 주민밀착형 도서관망을 구축하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 선진국 도서관 중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속가능한 작은도서관 구축 및 운영 모형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작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차원

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요소를 검토하여 작은도서관의 개념, 기능 및 역할을 제시하였다.

(4) 지역주민 일상 생활권 속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활성화하는 실천적 방안 도출

국내에서 지역주민 일상 생활권 속에 새롭게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요소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복지관 등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이러한 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국처럼 지역사회 주민 생활권(주택단지, 상가, 관공서 등)에 작은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21세기 한국 사회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개발

이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선진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작은도서관 사이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우리나라 작은 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유형과 전개과정 고찰 •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중 주요 사례에 대한 유형별 분석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 선진국의 주민밀착형 도서관 운영 시스템 현황 벤치마킹 •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서 브랜드가 될 정도로 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사례
작은도서관의 개념 기능 역할 정립	• 공공도서관의 연계 또는 확대 선상에서의 작은도서관 • 현단계 작은도서관의 개념, 기능, 역할 정립
우리나라 작은 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 새로운 도서관 설립의 현실적 제약 요건 극복 • 기존 공공도서관과의 유기적 인계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개발	• 21세기 한국 사회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모형 개발 • 선진형 모형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그림 2〉 연구 내용 요약

3. 연구의 방법

(1) 연구 방법 개요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전국적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운동의 현 단계를 점검하여, 한국 사회 현실에 적합하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부차원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연장선상에서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것을 보완하고 기존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흐름을 정리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주요 사례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을 제시하고자 했다.

(2) 주요 단계와 방법

◎ **1단계** - 선진국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전개 과정을 재조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덴마크, 브라질의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지역주민 밀착형으로 오늘날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이루어 내었는지 조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 **2단계** -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 정의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현장탐방 및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국내 작은도서관 운동에서 양서협동조합 운동, 노동도서원, 어린이도서관 운동,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이러한 근현대 도서관운동의 정신이 구현된 국내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3단계** - 전국 작은도서관 중 주요 사례로 예상되는 여러 영역의 작은도서관을 조사한 후, 주된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비교했다. 이를 위해 주요 사례가 되는 작은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찰하고, 사서, 도서관 운동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를 심층인터뷰했다.

◎ **4단계** - 국내외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망라적으로 조사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이거나 특징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정리했다.

◎ **5단계** - 연구과정의 산출물을 가지고 작은도서관의 선진형 모형 및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연구팀의 작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 **6단계** - 이러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사회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을 도출하고, 아울러 국내 작은도서관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3)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망 구축 방안 모색

본 보고서에서 지칭하는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시·군·구 단위)에서 형성되는 작은도서관들의 네트워크를 주로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사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 방안, 전국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 및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기초 논의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의 각종 정책기구, 사회단체 협의체, 법인, 협회 등의 활동과 지향점을 살펴보았다.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첫째, 우리나라 민간 차원의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여 도서관 운동사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작은도서관' 주요 사례의 특징을 조사하고 또한 각 사례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른 장단점을 규명함으로써 국내에서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하며, 정부 차원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보완적 자료와 현실적합적인 방안을 제공한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센터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및 공공도서관을 '소규모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형태로 건립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면서 종전과 같은 비용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수립할 때 참조할 수 있다.

넷째, 이 연구는 국내 작은도서관 운동의 열정과 창의성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제시된 문화 및 독서 프로그램 매뉴얼은 국내 작은도서관은 물론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참고 될 수 있다.

여섯째,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수행된 문헌정보학 연구 사례가 될 것이며, 이 연구에서 제공되는 자료와 방안 및 모형은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 중 도서관경영, 정보소외, 도서관정책 등의 분야에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

1. 도서관운동 전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일제 강점기에 당시 지배자였던 일본인과 일부 지배계층을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었고, 이것은 이후 독재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국가권력이 정보와 지식을 검열하고 대중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서관을 자리매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민중이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지배이데올로기의 확산 장소이자 시험과 입시를 위한 공부방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최근까지도 공공도서관에 제기되는 민원의 대부분은 정보자료 이용에 따르는 불편이 아니라, 공부방 확충이나 독서실 부대시설 확충에 대한 것이다.

2. 1960~1970년대

(1) 1960년대 – 마을문고운동

오늘날 작은도서관 운동의 뿌리는 1960년대에 시작된 엄대섭의 마을문고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을문고 운동은 농촌 계몽형 도서관운동이었다. 1961년에 엄대섭은 '마을문고보급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마을문고 설치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때 마을문고 개념은 정규 도서관의 축소 형태였다. 즉, 마을문고는 세 가지 기본 요소(책을 넣어 관리할 수 있는 책장, 주민들로 이루어지고 문고 운영의 주체가 되는 독서회,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선정도서)로 구성되었다. 1961년 한 해 동안 설치한 문고는 26개이고, 1973년에는 3만개를 넘었다. 또한《마을문고》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고 문고 지도자와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자금난으로 인해 1980년대초 새마을운동본부에 흡수되었으며,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2~30대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도시로 유출되면서 농촌공동체가 붕괴됨에 따라 마을문고운동도 쇠퇴하였다.

(2) 1970년대 말 – 양서협동조합 운동

1970년대 말 부산에서 처음 시작된 양서협동조합 운동은 도시형 지식공동체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후 도서원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운동이다. 양서협동조합의 근본이념은 '지식의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데 있었다. 진보적 지식인으로 구성된 조합원들은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서울의 봄'·광주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격변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부산 양서협동조합

1978년 4월 5일 부산YMCA강당에서 창립되었으며, 교수·목사·변호사 등이 주된 창립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1979년 부산·마산 민주항쟁에 조합원 다수가 참여하면서 해체되었다. 이후 당시 조합원이었던 전중근이 1987년에 부산 최초 노동도서원인 '아롬도서원'을 설립하였다.

○ 경남 양서보급회

1978년 8월 12일 '경남 양서보급회'가 마산YWCA강당에서 128명의 발기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이 또한 회원들이 부마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해체되었다. 이후 1987년 5월 회원제도서관인 '책사랑'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창원지역 마을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서울 양서협동조합

부산 양서협동조합의 영향을 받아 1978년에 창립[1]되었고, 1979년 세계아동의 해를 맞아 조합 내 소모임으로 '어린이책 연구모임'이 출범하였다. 1980년에 서울 양서협동조합 주최로 제1회 어린이 책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것이 현재 대표적인 어린이독서문화 운동단체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 '서울의 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조합이 위기를 맞게 되었고, 1983년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이후 '어린이도서연구회'만 남아서 지금까지 어린이 독서문화운동을 이끌고 있다.

1) 초대 이사장은 조영황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다.

○ 양서협동조합의 계승

부산 양서협동조합은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며, 이후 전국(마산, 광주, 수원, 서울 등)에 양서협동조합 설립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비록 양서협동조합은 시대적 상황에 의해 해체되었지만, 이후 1980년대 노동도서원, 어린이도서연구회, 각종 시민운동, 1990년대 창원의 마을도서관 운동, 사립문고 운동, 어린이도서관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도서관운동과 독서문화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3. 1980년대

1980년대 국내 도서관운동의 진원지가 된 '도서원'은 양서협동조합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크게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도서원'과 지역사회 주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도서원'으로 나눌 수 있다.

(1) 노동도서원

노동도서원은 노동자를 위한 민간도서관으로, 1980년대 후반기에 전국적으로 노동운동과 통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위한 자료와 지식의 공동체로 출현하였다. 그러므로 노동도서원의 장서구성은 사회과학 서적, 노동관련 서적, 사회문제 및 민족문제 관련 문학 서적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노동문제 상담, 독서회 및 역사기행반 운영 등과 같은 활동도 전개하였다. 부산의 아롬도서원, 햇살도서원, 광장도서원, 거제 일사랑, 서울 구로의 한벗 등이 대표적인 도서원이다.

(2) 주민도서원

① 서울지역 주민도서실

주민도서실운동은 지역의 정보·문화·교육 인프라인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다양한 방식의 의식화, 조직화가 우리나라 사회운동 과제로 등장하면서 사회민주화운동의 한 방법으로 생겨났다. 서울지역에서

는 1988년 4월 청년회원들이 주를 이루면서 다양한 계층이 회원으로 활동한 '푸른 소나무 도서대여실'[2]이 본격적인 주민도서실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비슷한 여건을 가진 다른 지역의 도서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 주민도서실은 지역주민의 자주적 조직을 건설하는 운동인 '도시빈민운동'에서 출발했다. 대표적으로 '책 읽는 마을'[3]과 '난곡 주민도서실'[4]이 있다.

② 남해 '책사랑 나눔터'[5]는 농촌지역 주민운동을 위해 설립된 도서실이다. 이 도서실을 매개로 지역신문인《남해신문》이 발간되고, '남해사랑청년회'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③ 마산 '책사랑'은 경남 양서보급회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작은도서관 운동 단체이자 작은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설립 초창기부터 대규모 자본과 공간[6]으로 출발하였다. '책사랑'이 있던 장소는 지역문화가 집중되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7] 지금은 창원의 대방 마을도서관과 마산의 내서 마을도서관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2) '푸른 소나무 도서대여실'은 5인으로 구성된 자치 조직인 '새날회'를 주축으로 가입비 외에는 무료로 운영된 도서실로 1992년에는 2,500여명의 회원과 6,000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었다.

3) 성북, 도봉, 노원지역의 '책 읽는 마을'은 어린이글짓기교실, 청소년 모임, 후원회 모임, 무공해 비누 만들기, 어린이날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지역 주민과 밀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4) 난곡 주민도서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서관학을 전공한 이들에 의해 설립·운영된 도서실로서, 빈민지역인 신림7동에 경인지역 도서관학과 학생들이 만든 도서실이다.

5) 박동완, 김두관(전 남해군수,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 의해 설립되었다.

6) 당시 자본금 4,000여만 원, 공간 70여 평으로 설립되었다.

7) 책사랑은 마산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노동운동, 시국 관련 인쇄물을 수집하였고, 수출자유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노조문고, 마을문고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였다. 또한 운영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직장인과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당시 금서였던 여러 사회과학 서적을 구비함으로써 '사상의 자유' 공간으로서도 기능하였다.

④ 대구 '새벗도서관'은 1989년에 '새벗도서원'으로 설립되어 1999년에 법정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한 마을도서관이다. 도서관 운영과정에서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서관에 우호적인 후원집단을 조직하여, 민간도서관을 둘러싼 안팎의 환경변화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다. '새벗도서관'은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 직접 설립에 참가하고, 설립 이후에는 도서관운영의 후원자가 되는 시민참여형 도서관이다. 현재 '새벗도서관'은 권위주의 시대에 벌였던 사회개혁운동과 사회병리의 치유차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독서치료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4. 1990년대

198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민간 도서관운동은 제도권 도서관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으로, 1990년대 들어와 이러한 민간 도서관운동은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1993년에 발족한 '작은도서관협의회'[8]는 이후 전국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협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1994년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마을문고 조례 제정운동'[9]을 들 수 있다. 이 시대의 다른 도서관운동 사례로 인표어린이도서관 설립, 좋은 책읽기 가족모임 활동, 어린이도서연구회 및 어린이도서관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8) '작은도서관협의회'는 1987년 정정식(당시 서울 종로도서관 열람과장)에 의해 개설된 성산문고(종로도서관 분관)에서 출발하였다.

9) 전국에서 처음 문고 지원 조례 제정운동이 일어난 곳은 경기도 부천으로 당시 '약대글방'을 운영하던 정성희는 1995년 11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부천시 조례 제정 청원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1996년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약대글방은 현재 부천시 산하 공립문고로 등록되어 '신나는 가족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경기도 김포에서 주민도서관 '책나눔'을 운영하던 김진수에 의해서 1996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1997년엔 대구에서 '대구정보생활도서관(현재 더불어숲 도서관)'을 운영하던 구경래의 노력으로 광역시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1) 인표어린이도서관

가난한 아이들이 독서의 흥미를 느끼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주)에스콰이아 창설자인 이인표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총 22개 어린이도서관(국내 14곳, 국외 8곳)을 설립하였다. 또한 이들을 지원하는 본부는 도서를 수서·정리하여 모든 인표어린이도서관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사서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활동을 한다.[10]

(2) 좋은 책읽기 가족모임(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좋은 책읽기 가족모임'은 1987년부터 서울에서 작은도서관 운동을 시작했다. 1991년부터 '산간벽지 문고 건립운동'[11]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07년 현재 전국 산간벽지에 69개 작은도서관을 설립·지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도서와 비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책 읽는 버스'[12],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13]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3)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서울양서협동조합의 후신으로 1990년대의 민주화 진행, 교육정책 변화 등으로 활성화되었다.

---

10) 여러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의 모범이 되는 인표어린이도서관이 가지는 한계라면 관의 지원없이 기업에서 지원하는 도서관이라는 점이다. 도서관 지원주체인 인표문화재단이 모기업의 흥망에 따라 혹은 주주의 인식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1) 산간벽지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여 문고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학교와 주민들 스스로 도서관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2)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후원을 받아 '책 읽는 버스' 2대를 운영한다. 한 대는 강원도내 산간벽지를 돌면서 주민들에게 독서캠프, 작가와의 만남 등의 활동을 하고, 다른 한 대는 전국 해변과 관광지를 돌면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책 읽기운동을 하고 있다.

13) 2002년부터 강남 구립 작은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9개 작은도서관과 3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카드 한 장으로 작은도서관 9곳, 동사무소 문고 7곳, 관내 학교도서관 25곳, 이동도서관 3곳 등 모두 44곳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상호대차까지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지역조직으로 '동화 읽는 어른'이 있으며, 부천에서 1993년에 처음 탄생하였다.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3,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동화 읽는 어른'은 처음에는 회원 각자의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자는 소박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는데, 점차 독서문화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해마다 발간하는 '어린이권장도서목록'은 국내에서 어린이를 위한 권장도서목록으로는 즐겨 참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작은 규모의 어린이도서관[14]이 생겨났다. 이러한 어린이도서관들은 2000년대 전국적인 어린이도서관운동을 불러일으킨 '기적의 도서관' 설립운동으로 연결되었다.

5. 2000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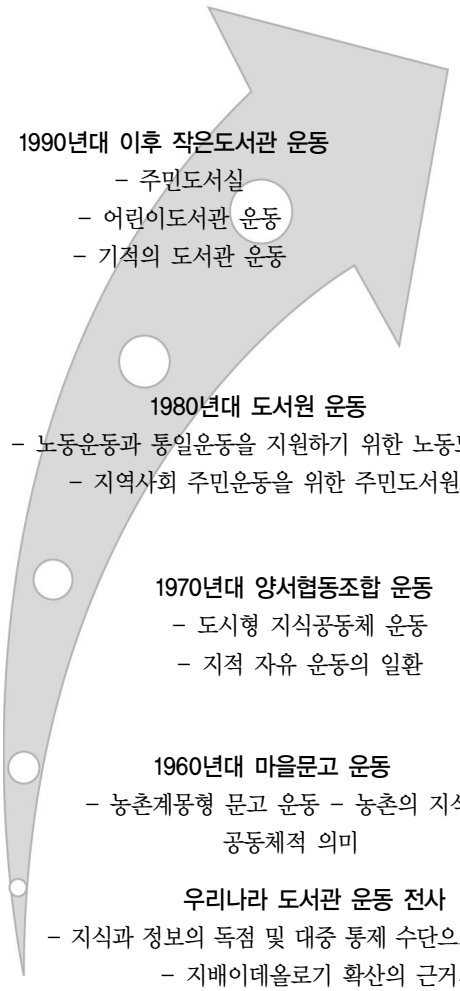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욕구가 많이 대두하였다. 특히 2003년부터 전개된 '기적의 도서관(Miracle Library)' 프로젝트[15]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운동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함을 인식시켰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에 나서는 데 큰 자극을 줌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국가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기적의 도서관' 건립 운동[16]과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벌이는 주요 단체는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17]이라는 범국민 독서운동 단체이다.

14) 조준영은 1993년 서울 자신의 집에서 '파란 책나라 어린이도서실'을 개설했는데, 이것은 1990년대 작은 어린이도서관운동의 출발로 볼 수 있다. 이후 김포에서 오명숙이 아파트 노인정을 빌려 '작은 자리'란 도서실을 운영하고, 전영순이 중랑구에서 '파랑새 어린이 도서관'을, 대전에서 이선배가 '선배어린이도서관(현 '모퉁이 어린이도서관')을, 제주에선 허순영이 '설문대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였다.

15) 2003년 7월 순천에서 '기적의 도서관' 1호가 건립된 것을 시작으로, 이어 제천과 진해에서 개관하였고, 2004년에는 서귀포, 제주, 청주, 울산 북구, 2005년에는 금산, 2006년에는 인천 부평에서 개관하여 총 9개관이 건립되었다.

16) 또한 이 운동은 특정 방송국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강력히 후원하여, 국민 전체의 반향을 광범위하게 불러일으켰다.

17) 홈페이지 http://www.bookreader.or.kr/



〈그림 3〉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운동사 개관

6. 시사점

① 마을문고 운동과 작은도서관 운동

엄대섭의 마을문고운동은 산업화가 되기 이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계몽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 비해, 양서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도서관 운동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도시형 운동이었다.

또한 엄대섭의 마을문고 운동은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해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인데 비해, 양서협동조합과 그 이후 전개된 작은도서관 운동은 전국의 다양한 운동가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 연대하는 수평적인 운동이었다.

양서협동조합 운동으로 시작되는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운동은 지금까지 관에 의해 설립된 공공도서관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도서관이 독서실로 기능, 주민밀착적인 인프라 미비 등)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도서관문화에 대한 결핍을 느낀 지역사회의 주민들 스스로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공동체 차원의 도서관문화를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도서관운동은 무엇보다도 사상적·지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② 작은도서관 운동이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에서 아래와 같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위한 자료수집
○ 민주적 운영과 창의적 서비스
○ 운영자의 신념과 헌신성
○ 이용자의 주인의식
○ 후원자의 참여
○ 도서관운동과 지역사회단체와 연대
○ 정보와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간
○ 지역사회 여러 공동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의 축적
○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 지적 자유, 사상의 자유,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수호
○ 지역사회 주민운동 참여 또는 주민운동 적극 지원
○ 지역주민의 일상적 정보요구에 대한 해결 또는 정보 제공

III. 선진국 작은도서관에 대한 벤치마킹

1. 주요 사례[18)]

(1) 미국

미국의 작은도서관은 '작은 공공도서관'이다. 즉, 지역사회에서 구축된 전체 공공도서관 인프라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인구 25,000명 미만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들 도서관들은 '문고'나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보다는 '~Public Library'로 모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작은도서관들이 분관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도시의 경우 '대표관-지역중앙관-지역분관-이동도서관문고', 농촌·부락의 경우는 '지역중앙관-이동도서관·문고'의 형태로 운영된다. 또는 공공도서관의 봉사권역과 봉사인구 입지기준에 따라 크게 '중앙관-중분관-소분관'의 형태로 나누기도 한다. <표 1>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미국의 규모별 도서관 봉사권역과 봉사인구 입지기준

	봉사권역	봉사인구	입지
대분관 또는 중앙관	시 전체	제한없음	중심업무 및 상업지구의 1~2블록 내 교통이 편리한 간선도로면에 위치
중분관	1~1.6마일	25,000~50,000명	접근성이 양호해야 하며 인구 100,000명 이상 도시
소분관	소지역	지역에 따라 다양함	매일 개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 임대건물 내 위치 가능.

18) 이 장에서 언급된 사례 중 일부는 이 연구의 선행연구인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김세훈 외, 국립중앙도서관, 2006. 11)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중앙관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분관)에 대해서 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 운영예산 확보 방안, 도서관 장서개발지침 등에 대해 지원하고 조언을 한다. 또한 중앙도서관에서 1년에 1~2회 정도 작은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 신기술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한다. 또한 도서관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지원과 같은 컨설팅서비스는 물론, 대중소설과 같은 인기있는 신간 등의 지원을 위해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작은도서관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직원 교육의 기회, 기술 지원문제, 인터넷 연결과 같은 서비스접근에 대한 제한 등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Rural Library Substantiality Project'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모범적이고 열성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을 고무하고, 모범 도서관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미국 베스트 작은도서관상'[19]과 '최우수 작은도서관 서비스상'[20]을 시상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1개의 지역중심관과 복수의 지역도서관(분관, 분실), 자동차도서관으로 이뤄지며, 정·촌·부의 경우 단독관(지역중심관) 및 자동차도서관 서비스 형태를 취하고 있다.

19) Library Journal사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공동스폰서로 제정하였으며, 2005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수여대상은 미국 내 25,000명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작은도서관 중에서 서비스, 프로그램, 지역 내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수상도서관은 15,000달러의 상금과 함께 도서관 대표 2명이 미국 공공도서관협회 대회(PLA Conference)에 참여할 수 있는 비용 일체를 제공받는다. 2005년에는 Haines Borough Public Library가 선정되었고, 2006년에는 Milanof Schock Library, 2007년에는 Grand County Public Library가 선정되었다.

20) 최우수 작은도서관 서비스상은 미국 도서관협회 산하 공공도서관협회와 EBSCO Information Services사가 공동스폰서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1992년부터 매년 시상하였다. 수여 대상은 10,000명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도서관 중 지역사회에 특별하거나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다. 선정된 도서관은 상패와 1,000 달러의 상금을 받는다.

〈표 2〉 일본의 도서관 조직망의 서비스 내용

도서관	서비스
지역중심관	- 지역도서관 기능 - 참고서비스, 도서관서비스 망의 운영 및 추진, 이동도서관 사무
지역도서관	- 대출, 예약, 독서안내 - 쉬운 참고서비스 - 집회활동, 행사실시 및 시설제공
자동차도서관	- 인구밀도가 낮고, 지역도서관이 없는 지역 - 서비스 스테이션 설치, 대출, 예약서비스

일본의 도서관은 <표 2>와 같이 건물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각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기능에 따라 나뉜다. 일본의 도서관은 이동도서관 및 작은도서관(분관)에서 시작하여 이후에 중앙관이 들어서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런 연유로 분관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어서 도서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분관설치 이후 중앙관을 설립하는 방식을 통하여 도시 전체의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분관마다 전문사서를 배치하여 분관이 부딪히기 쉬운 전문성 결여 문제를 줄였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분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일본의 도서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고, 외국인을 위해서 홈페이지 및 도서관 안내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장서보관, 대출반납 등 기본적 기능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문화센터 및 정보센터의 역할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지원프로그램 등과 같이 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다. 일본 도서관의 서비스 활동을 아래의 히노시립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히노시립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히노시립도서관(이하 히노도서관)은 1965년 6월에 「히노시립도서관 설치조례」가 공포되면서 같은 해 9월 21일 이동도서관 1대(정차장 37개)로 출발했다.[21)]

〈사진 1〉 버스 한 대로 출발한 히노도서관

이듬해 6월과 8월에 타카하타 도서관과 타마다이라 아동도서관이 개관되었으며,[22)] 1967년 복지센터도서관, 1969년 사회교육센터 도서관, 1971년 히라야마 아동도서관, 타마다이라 아동도서관이 정식 개관한 이후, 1973년에 중앙도서관이 개관되었다. 이동도서관의 전성기였던 1975년 경에는 "타카하타 대단지 우체국 앞에서 수요일 오후 3시에 테마송으로 이동도서관의 도착을 알리면 아이들이 긴 열을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고 책상 4대에 책이 든 20 상자를 꺼내 준비를 시작하면 해바라기호[23)]와 책상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직원들이 대출, 반납의 수속과 정리를 했지만 금방 50분

〈그림 4〉 히노도서관의 중앙관 및 분관의 위치도

21) 당시 히노도서관은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목표로 개설되었는데 이는 히노도서관 신설 이전 아리야마 시장과 마네카와 츠네오 초대관장이 저술한 「중소도시의 도서관 운영(약칭 중소리포트)」에서 제시한 "도서관의 자료는 시민들의 것이고, 따라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서를 대출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맥락이 닿아 있었다.

22) 타마다이라 아동도서관 경우 폐전차 차량을 개조하여 도서관으로 활용했다.

23) 이동도서관의 애칭

이 지나가 버렸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다. 이후에도 시정정보실, 도야마, 히노, 모구사도서관 등이 개관, 현재는 중앙관, 분관 7개, 이동도서관 1대가 운영되고 있다.

히노도서관은 이동도서관에서 출발하여 분관을 도시 곳곳에 설치한 이후 중앙도서관을 설치한 사례이다. 즉, 이동도서관 및 분관을 통하여 도시곳곳에 도서관 서비스포인트를 확보하고 중앙도서관을 설치했다. 중앙도서관은 분관의 상위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과 더불어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는 한국의 작은도서관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방이후 한국의 공공도서관이 시·군 단위로 설치되어 규모 및 장서 확장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문제로 지역주민들에게 밀착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민간주도 작은도서관들이 전국곳곳에 설치된 것도 일본 히노도서관의 사례에 비춰볼 때 생각해 볼 문제다.

(3) 덴마크

덴마크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무료 공공도서관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은 도서관법령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1주일에 4일 개관되며 3명 정도의 사서가 근무하는데 이들은 시립도서관에서 파견된 사서들이다. 작은도서관은 서비스포인트 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고령자, 아동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 시골과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보다 큰 도서관시스템에 포함된 자동차도서관 혹은 분관에 의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최근 지방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부모와 아이들이 쉽게 유치원에 올 수 있음에 착안하여 미디어와 직원의 지원을 통해 '유치원도서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1993년 공공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의 목록이 합병되어 '국가서지종합목록'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어떤 자료든지 요청할 수 있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상호대차 서비스는 무료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

가적 책임 하에 전국적 배달시스템과 긴밀히 협력하며 운영된다. 운영 시간 연장의 방법으로 도서관-실내수영장, 도서관-서점 등의 연계를 통하여 전문적인 특화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자동차도서관 서비스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집으로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자를 위해 이용자의 집으로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이며, 이밖에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4) 브라질

공공도서관의 수가 1985년에 4천개 이상이 되었지만, 도서관들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꾸리찌바시의 '지혜의 등대' 도서관이다.

'지혜의 등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90년 중반에 시작한 사업으로 가난한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었고, 이들에게 도서관 이용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컴퓨터 교육을 통한 정보소양 함양을 돕고 있다. '지혜의 등대'는 단순한 도서관의 차원을 넘어서 청소년의 쉼터 및 선도시설, 지역의 치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혜의 등대'의 운영주체는 꾸리찌바시이며, 4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설치장소는 공립학교의 교문에서 30미터 이내 설치가 원칙이고 운영인력은 1개소 당 10명(5명 1조 2교대)이다. 이용현황은 각각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주일 평균 1,000여명 정도이며 증가 추세에 있다. 각 '지혜의 등대'에는 약 5,000~8,000여권의 도서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5~6대 있다. 도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중앙도서관 또는 다른 '지혜의 등대' 도서와 교환된다.

2. 국내 작은도서관을 위한 시사점

(1) 국내 작은도서관의 여건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여건은 선진국에 비하여 열악한 수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로 민간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등록문고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24]

〈표 3〉 전국 등록문고 현황 결과표(2005.12.31 기준)

문고수	평균면적(㎡)	평균열람 좌석수	장서량(책)	공립	사립
2.872	80(24평)	24석	3,287	778 (27.1%)	2,094 (72.9%)

<표 3>에서 보듯, 우리나라 문고 중 사립문고가 70%가 넘는다. 문고의 규모는 평균면적 80㎡(24평), 열람석 24석, 장서 평균 3,287책 수준이다. 자료성장률은 매년 4.3%정도로 바람직한 자료성장률인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건비도 한달에 15만원 가량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영세함을 드러내고 있다. 인력 또한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전문인력을 통한 서비스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고 당 평균 근무인력은 4.43명으로 이중 자원봉사자가 3.7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가 시간제 0.2명, 전임직원 0.36명, 기타인력 0.1명으로 나타나,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고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근무인력 중에서 사서자격 및 독서지도사 자격을 가진 참여인원은 전체 평균인원 4.43명의 15%정도인 평균 0.68명이다. 이들 유자격자 중 87.6%인 평균 0.6명이 독서지도사 등 독서관련 단기교육이수자 혹은 교직이수자 등이 대부분이고, 사서직 자격자는 전체 유자격자의 12.4%에 불과하다.

24) 김세훈 외, 앞의 책, 28쪽에서 재구성.

작은도서관 인력 중 사서비율이 낮다는 것은 작은도서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이용자들의 외면을 초래하고, 이것이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갖게 하여 결국 도서관에 더욱 무관심해지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사이에 파트너쉽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운영 프로그램

〈표 4〉 국내 문고의 운영프로그램 현황

자료열람	1120 (25.1%)	어린이캠프	156 (3.5%)
자료대출	1074 (24.0%)	어린이문화강좌	211 (4.7%)
독서실	463 (10.4%)	성인문화강좌	195 (4.4%)
공부방 및 학습지도	402 (9.0%)	가족프로그램	70 (1.5%)
독서토론	259 (5.8%)	기타	142 (3.2%)
독서지도	375 (8.4%)	계	4467 (100%)

<표 4>[25]는 문고에서 실시하는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의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자료열람(25.1%)과 자료대출(24.0%)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서 독서실 제공(10.4%)과 공부방 및 학습지도(9.0%), 독서지도(8.4%), 독서토론(5.8%), 어린이 문화강좌(4.7%), 어린이캠프(3.5%) 순으로 나타나 어린이 및 청소년의 독서와 학습관련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성인 문화강좌(4.4%), 가족프로그램(1.5%)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부분 영·유아 혹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이다. 성인 이용자 중에는 주부들이 많은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보다 보통 자녀들과 함께 오거나, 자녀의 책을 빌리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5) 김세훈 외, 앞의 책, 35~36쪽.

② 운영주체

〈표 5〉 국내 문고의 운영주체 현황

지방자치단체	130 (8.1%)	아파트	136 (8.8%)
공공도서관	4 (0.3%)	새마을문고	307 (19.9%)
교육청	2 (0.1%)	종합복지관	31 (2.0%)
동사무소	169 (11.0%)	개인	162 (10.5%)
민간단체	118 (7.7%)	기타	93 (6.1%)
종교단체	390 (25.3%)	계	1,542 (100%)

<표 5>[26]는 국내 문고 운영주체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06년 6월 기준으로 2,215개 문고 중 운영주체가 확인된 1,542개 문고의 운영주체를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은 문고를 운영하는 단체는 종교단체(390개)로 나타나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문고 169개, 개인운영 문고 162개, 아파트운영 문고 136개 순으로 비중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립도서관 수보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문고나 작은도서관 수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은도서관 단위인 전국 문고 수는 공립문고 778관과 사립문고 2,094관으로 모두 2,872개가 집계되었다(공립문고 27.1% : 사립문고 72.9%). 사립문고의 높은 비중은 공공도서관의 접근성과 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자구책으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시사점

① 사립문고의 높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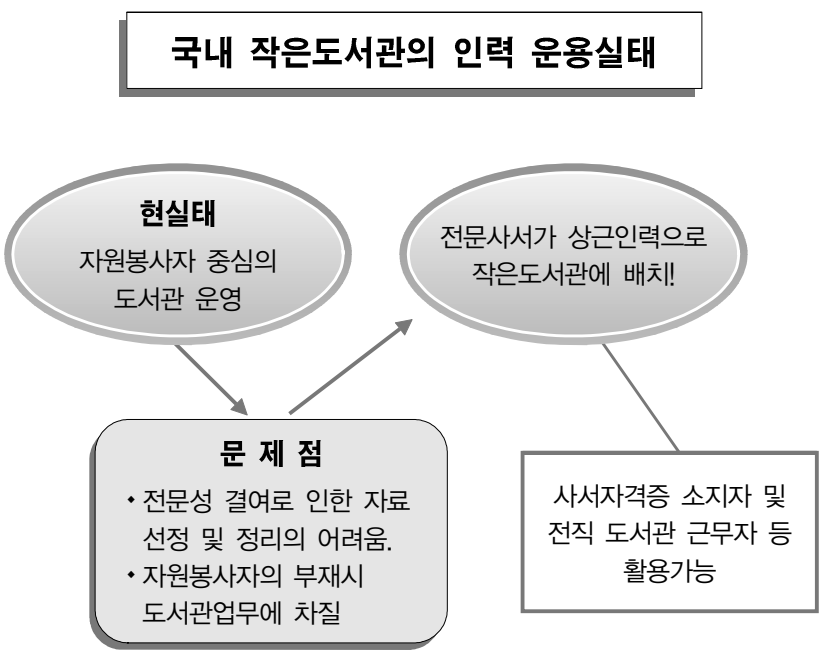
우리나라 문고의 경우 전체의 72.9%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은 우리나라 문고 규모와 같은 작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26) 김세훈 외, 앞의 책, 29쪽.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곧, 민간영역 비중이 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덴마크나 미국의 경우 도서관서비스 초기에는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시설들이 설립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시설들은 재정, 인력 등 여건상 어려움으로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포함되면서 대부분 공공도서관의 역할로 이전되었다. 이는 도서관서비스에서 정부의 역할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향이 작은도서관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② 전문인력 부재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은 전문사서는 물론이고 전담인력이 비치된 곳이 드물고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작은도서관의 장서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장서의 선정 및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부재시 작은도서관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림 5〉 국내 작은도서관의 인력 운용실태

외국의 작은도서관들의 경우 최소한 1명의 전담직원과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고 있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장서의 구성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③ 규모나 프로그램의 영세성

국내에서 작은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표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료열람 및 대출, 독서실 제공 수준이 대부분이며 작은도서관 자체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있어서도 영세함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작은 장서로 도서관서비스를 펼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작은도서관들이 많지만, 기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는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대차시스템이나 중앙관으로부터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성인·이주민을 위한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부터 법률 및 행정업무, 취업 상담에 이르기까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④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은 민간영역에서 설립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공도서관과의 연계가 쉽지 않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공공도서관과 안정적인 연계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력·장서·재정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연계체계를 통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이 안정화되면 주민친화적 성격에 기반하여 공공도서관보다 더욱 다양한 주민수요 대응프로그램

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1960년대 엄대섭의 마을문고 운동에서부터 2000년대 작은도서관 운동에 이르기까지 민간에서 여러 도서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대·장소를 불문하고 '진정한' 도서관에 대해 염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민간도서관들은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부침이 심하다. 앞으로 그 생명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은도서관 모형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IV. 작은도서관의 선진형 모형

1. 선진적 작은도서관의 개념 정립을 위한 기초적 논의

앞에서 국내 도서관운동의 역사적·사회적 발전단계를 조명하고, 또한 선진국 도서관 시스템의 장점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우리나라를 도서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작은도서관의 미래지향적 개념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작은도서관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선진적인 작은도서관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적 지침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선진형 작은도서관 개념 정립을 위한 기초적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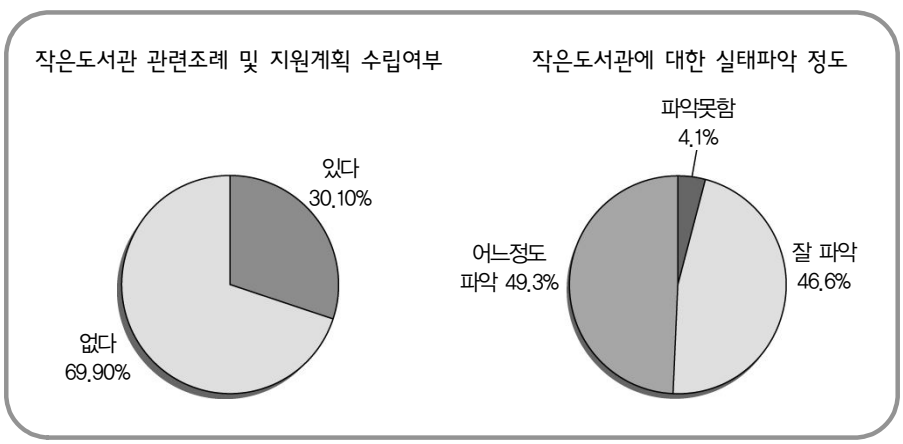
장서	• 체계적으로 개발된 수준, 국가표준에 의한 도서정리, 공동수서·편목·상호대차 가능. 3,000권 이상
사람 (사서+이용자)	• 사서의 역할 – 자료개발,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사회 정보서비스 제공 등 • 이용자의 역할 – 도서관 서비스의 수혜, '도서관의 친구'
시설	• 50평 내외(권장수준)
운영 및 서비스	• 공공도서관 협력망 차원에서 운영. 주민(남녀노소)의 삶과 일에 관련된 정선된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 주민친화적, 주민참여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과의 공동프로그램 운영
위치	• 지역의 모든 주민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존재(도서관 서비스 반경 1km)
역할	• 건강한 지역공동체 지향 • 지역민 중심의 정보서비스,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 •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비영리 정보·교육·문화공간 •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도서관망을 형성,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 수행.
고려사항	• 도서관의 기본 요소(장서, 사서, 시설)를 갖추고 있는가? •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 장기적으로 공간확장이 가능한가? • 장서증가에 대비한 방안이 있는가? – 보존서고(1차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담당), 장서의 순환·기증·교환을 위한 차량 구비 등.
궁극적 목표	•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협력망 형성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선진적 작은도서관'이 정부의 적극적 행정서비스 거점인 동시에 주민참여의 거점임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본질적 가치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초적 연구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진형 모형의 기본 요건들을 열거하고 미래상을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다.

2.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1)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거점

작은도서관 역할에서 정부의 적극적 행정서비스 거점으로 기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대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림 6>[27]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파악 정도"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편이다.



〈그림 6〉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자체의 실태파악 정도 및 지원계획 수립여부 통계

27) 김세훈 외, 앞의 책, 48~49쪽.

그러나 관심도에 비해 작은도서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는 “작은도서관 관련조례 및 지원계획 수립여부”에서 수립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도서관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50여 년 전부터 연방정부를 통하여 예산 투입이 이뤄져 왔으며, 도서관의 수입구조에 있어서도 약 80%이상이 지방 재산세와 소득세에서 나올 정도로 주정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28)]

덴마크의 경우에도 도서관 사이의 상호대차시스템에 대하여 주(State)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호대차 비용이 무료이며, 유통시스템 또한 국가적으로 주도되고 있어서 작은도서관에까지 상호대차서비스가 미치고 있다. 또한 ‘library.dk’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모든 자료를 주문할 수 있고 각자의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해당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의 운영예산과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작은도서관 수준을 끌어올리고 도서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설립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시·군·구·동·면·읍 단위로 경상예산에서 이루어지도록 조례화되어 상시적인 작은도서관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내역은 <표 7>과 같다. 이 중에서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부천시가 가장 모범적인 지원정책을 보여주고 있다.[29)]

28) Michael Gorman, "미국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국립중앙도서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12~13쪽.

29) 이재희,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모델 국내사례”,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2006, 3~4쪽.

〈표 7〉 국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역

부천시의지원 내용	※ 운영비 전액 지원 • 전문사서 인건비 • 보조인력 인건비(월 50만원) • 자료구입비 • 프로그램 운영비 • 기타 제세공과금 등 • 1관당 약 3,900만원의 운영비 지원(2006년 기준)
창원시의 지원내용	※ 운영예산 일부 지원 •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 실무자 2인 인건비(각각 월 90만원) • 2006년 운영예산 지원(1관당) : 사회교육센터 3,720만원, 마을도서관 2,160만원
순천시의 지원내용	※ 자료구입비 지원(월 1회) • 북스타트 도서(1,600만원), '책한권 하나의 순천'(500만원) • 월 50만원 운영비 지원(근무요원 인건비 30~40만 원 + 기타 운영비)

작은도서관이 행정서비스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도서관서비스 포인트의 확대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이 그 사례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정부의 각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도서관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안내 자료를 비치하거나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면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행정양식을 도서관에 비치하거나, 무인 서류발급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각 부처의 소관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여건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도서관 단독으로 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는 관할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전제로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경로가 될 것이다.

이처럼 작은도서관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보서비스 기능을 제

공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 서비스포인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를 기관별·주제별로 필터링하여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정보 및 정보소외 지역에서 무료 컴퓨터교육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기본적 기능뿐 아니라 행정관련 정보 및 소비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아래 <표 8>은 작은도서관이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거점으로 기능하는 것의 예시이다.

〈표 8〉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문고로서의 기능 수행 (예시)

행정부서	관련 역할
문화관광부	•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복합 문화생활 기능 • 예술·공연·전시 안내, 국내 및 해외여행에 관한 정보 제공.
행정자치부	• 주민민원행정처리 및 지역정보의 소통, 동아리, 커뮤니티기능의 강화 • 민원안내 및 민원신청을 위한 서식제공, 정책제안, 전시회·문화교실·동호회·컴퓨터 교실 등의 공간제공
보건복지부	•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교육·의료·보호·상담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특히 노인층 대상)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농림부	• 영농 정보 및 문헌의 공간 제공. • 수입농수산물의 구분법 등의 정보 제공
여성가족부	• 부모·자녀의 소통, 탁아 정보 제공 • 영유아 보육시설 안내 및 육아정보 제공, 부모상담.
법무부	• 법률문제·소송·법령 관련 정보 제공
교육인적자원부	• 학습·논술능력 관련 정보 제공, 강좌운영 • 학생생활지원·진학문제·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위원회	•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관련 정보서비스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 • 맞벌이부모자녀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노동부	• 취업정보·창업을 위한 정보센터 기능, 직업훈련·실업급여 등과 같은 복지혜택 안내, 국가자격시험 일정·응시자격 등 정보 제공.
병무청	• 병역·예비군·모병제도 안내.
건설교통부	• 부동산정보, 교통정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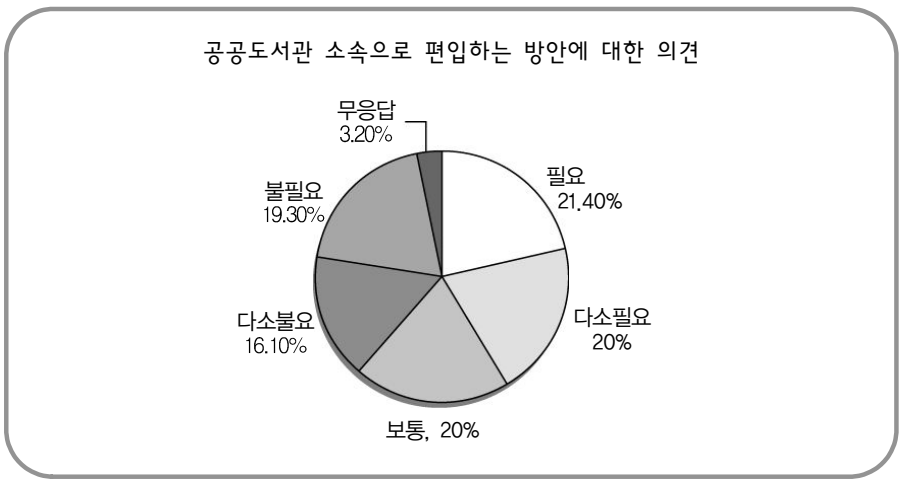
(2)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는 도서관서비스 포인트 기능

지역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의 의지에 따라 공공도서관 서비스포인트로서의 작은도서관은 <표 9>와 같이 3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표 9〉 선진형 작은도서관의 유형별 모형 (예시)

소분관(Sub-branch)	□ 개념 : 공공도서관의 지도·감독 아래 운영되는 공립의 소규모 분관 시설로 공중봉사 중심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기능 △ 주민밀착형 공공도서관 지역사회서비스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 매개 통로로 기능 △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핵심 기능으로 하면서 지역의 생활기반 지식정보수요 충족 담당 △ 생활친화 시설로서 지역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 동시 수행
확장적 소분관 (Extensive sub-branch)	□ 개념 : 공공도서관과의 지원·협력 아래 일정한 자율성을 유지하며 공중봉사 중심의 공공도서관의 소분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 □ 기능 △ 자율성에 기반하여 독립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관계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소분관과 유사한 기능 수행 △ 공공도서관의 직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서비스 확장에 기여 △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다양한 기능과 함께 도서관서비스 제공
자료대출 분관 (Book-distributing branch)	□ 개념 : 공공도서관의 지원 아래 공공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 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 기능 △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서비스포인트로서 공공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 업무 수행 △ 제한된 수준에서 공중봉사 업무 수행 △ 이동도서관(책버스)운영을 통한 원활한 대출·반납 서비스 제공

이와 같은 작은도서관을 단계별로 유형화하는 이유는 <그림 7>의 통계에서 나타나듯 작은도서관 중에는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약 40%,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35%로 공공도서관시스템으로의 편입을 꺼리는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7〉 **공공도서관으로의 편입에 대한 의견** (김세훈 외, 같은 책, p.63을 재구성)

공공도서관망으로의 진입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존 공공도서관에 대한 회의, 통합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율성 침해, 업무감사에 따른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입장에서도 현재 작은도서관을 그대로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편입하는 데에는 예산, 인력 등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별 모형은 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분관화를 목표로 하고, 작은도서관 여건에 따라 직접적, 간접적 연계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 기능

작은도서관은 또한 지역사회 소식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자료, 신문잡지, 연감, 연보, 지방사 자료, 문화기관 및 민간단체 제공 자료, 기업체 채용정보 자료 등을 비치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책 및 추진결과, 지역사회의

역사 및 소식, 구직정보 등을 알리는 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일본 히노도서관 중앙관 입구에 설치한 '일정보코너'로 일간정보지, 구인정보잡지, 구직관련기관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사진 2>는 일본 히노도서관의 '일정보 코너' 모습이다.

〈사진 2〉 일본 히노도서관 중앙관에 설치된 '일정보 코너'

이 외에도 작은도서관은 비도서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구비하여 지역주민에게 교양 및 학습 장소의 제공, 지역사회의 정보접근을 위한 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가령 북카페 분위기[30]에서 휴식 및 정보습득이 가능하도록 작은도서관을 꾸밈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의 장 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는 독서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기주도 학습 및 토론학습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정해진 매뉴얼을 통한 '수여형' 교육방식보다

30) 신간서적 코너, 잡지코너, 편안한 가구, 식수 등을 구비

지역주민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공동체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참여형' 교육방식을 지향한다. 작은도서관이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이라면 주민자치센터와 입구를 따로 운영하고, 개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저녁과 주말 시간에도 개방하는 등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지역사회에서의 주민 참여 거점

① '도서관의 친구들(Friends of Libraries)' 조직

도서관의 친구들은 도서관에 대해 친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평소에는 도서관을 즐겨 이용하면서 자원봉사의 형태로 일을 거들어주기도 하고 도서관홍보에도 적극 나서며, 시의회 또는 구의회 방청석에서 도서관예산에 대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특히 도서관이 어려움에 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언론을 상대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도서관 경영자나 사서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 그룹과 수시로 만나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개선점 그리고 '도서관의 친구들'이 도서관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논의한다. '도서관의 친구들'이 수행하는 주요 활동은 기금모금(Fund-raising), 자원봉사(Volunteering), 홍보활동(Public Relations), 캠페인 및 로비활동(Campaigning or lobbying), 지역주민 연계활동(Community involvemen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도서관의 친구들'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10여 개 나라인데 주로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에서 활발히 조직되어 있다.[31]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자원봉사 조직은 존재하나, 이와 같은 '도서관의 친구들'과 같은 조직은 아직 제대로 결성되지 못하고 있고 서울 광진정보도서관의 도서관 친구들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친구들'은 주인의식을 가진 이용자로 맥캐비의 *Civic*

31) 김영석, "'도서관의 친구'에 대한 고찰 : 도서관도 이제 친구가 필요하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5. 3), 279-294쪽.

Librarianship[32]이라는 책에는 "공공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을 고객이 아닌,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임무에 동참하는 파트너로 대하여야 한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너그럽게 봐주어야 하는 고객이 아니며 이익을 얻어낼 대상도 아니다. 그들은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의 친구들'이 되어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도서관을 가꾸는 작업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시민사서(Civic Librarian)'의 등장과 기여

시민사서는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공공도서관을 가꾸어 나가는 사서"를 말한다. 시민사서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며, 특히 공공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도서관의 기본 사명인 교육 기능을 강화하면서, 문화 및 정보 기능을 함께 진작하는 시민사서가 많아져야 하며 이러한 사서의 능력은 시민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공공도서관을 '민중의 대학(people's college)'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키워질 것이다.

작은도서관이 건립되면 반드시 유능하고 문화적 감각이 있는 사서들을 뽑아야 한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중 아동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와 도서관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이러한 분야에 애정이 있는 사서들이 많이 채용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또한 '시민사서'가 되어 학부모, 시민단체 활동가, 민간 독서운동가 등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장기적으로 가꾸어나가야 한다.

3. 작은도서관의 가치

작은도서관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친근한 독서·문화·교육의 공동체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형성된 문고설립 운동에서도 잘

32) Ronald B. McCabe, *Civic Librarianship*, Scarecrow Press, 2001; 오지은 역, 『도서관, 세상을 바꾸는 힘』(이채, 2006).

나타난다. 이러한 문고설립 운동은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한계(접근에 불편, 거대한 독서실 기능, 획일성 등)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마을도서관)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작은도서관 운동은 기존 공공도서관에 대한 회의, 도서관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자구책,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정보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갈망, 지역주민의 육아교육·친교 등을 위한 공동체에 대한 희망 등과 같은 양상을 노정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설립은 지금까지 법적 요건에 치중하여 시·군·구 단위로 크게 짓는 데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주민의 기대나 정부의 계획만큼 많고 다양한 공공도서관을 짓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었다.

작은도서관은 이와 같이 공급 위주에서 수요 중심으로 도서관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의 상징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소외계층이 겪는 정보소외 문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도서관이 정보의 불평등을 막기 위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생각할 때, 작은도서관은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 복권기금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33]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복지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민간의 역량, 열정, 자발성, 창의성, 주민친화성 등과 같은 요소(도서관정신)가 작은도서관의 가치가 되는 것이며,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토대를 이룬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비전은 도서관 선진국에서처럼 '주민들이 각종 주민자치, 행정, 사회,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비즈니스, 자활, 법률, 의료 등의 정선된 정보를 접하고 일상생활 및 위기 상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미국의 공공도서관(public libraries)와 작은도서관(small libraries)은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표 10>과 같은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33) 작은도서관을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50평 내외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도서관"이라고 정의하였음.

〈표 10〉 미국 공공도서관의 주요 서비스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행정정보의 창구	- 도서관은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 및 기구에 대한 최신정보 제공과 일반인이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서와 프로그램에 관한 정확한 최신정보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례로 선거가 다가오면 도서관에서는 선거관련 도서목록, 후보자의 웹사이트, 투표에 참고되는 링크집을 작성,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돕고 있으며 정부간행물 기탁도서관을 지정, 시민들이 쉽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시사 정보의 제공	- 도서관은 대중성을 가진 문화적, 사회적인 추세에 관한 지식과 여가를 위한 독서 및 다른 경험들에 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자료, 프로그램, 최신정보를 보유해야 함.
풍부하고 수준 높은 장서와 자료·매체를 바탕으로 한 정보서비스	- 도서관이 지역에서 가장 권위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의 역할을 수행.
지역주민이 함께 하고 참여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제공	- 성인대상 독자서비스,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프로그램 제공.
적절하고 유용한 법률 및 의학정보의 제공	- 일례로 뉴욕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내에 「커뮤니티 건강 정보센터」 프로젝트를 시도하여, 각 지역분관에 참조용 의학사전, 통계, 백서, 의료기관이나 의사 리스트, 치료, 처방약, 의료보험, 간호, 건강유지, 다이어트 운동, 영양 등과 같은 주제에 관한 책, 잡지, 녹음도서, 비디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조직과 연합하여 '뉴욕 온라인 건강 엑세스'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지역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Archive) 기능 수행	- 지역의 역사와 가계에 대한 정보에 관련된 장서와 프로그램의 보유
다양하고 매력적인 어린이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하는 성인을 위한 장서 및 프로그램의 제공을 비롯하여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 -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숙제지원, 독서이벤트, 수업자료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편안하고 인간적인 서비스 제공	- 미국 공공도서관 내 '시니어 어시스턴트'라는 직원을 배치, 고령자를 위한 기획이나 운영 등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책을 배달하거나 대활자본(Large Print)을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도 도서관을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기능	-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과 리터러시(읽고 쓰는 능력) 장애를 가진 성인을 위하여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작은도서관은 국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독서실(공부방) 이미지를 탈피하고 진정한 의미의 '도서관맛'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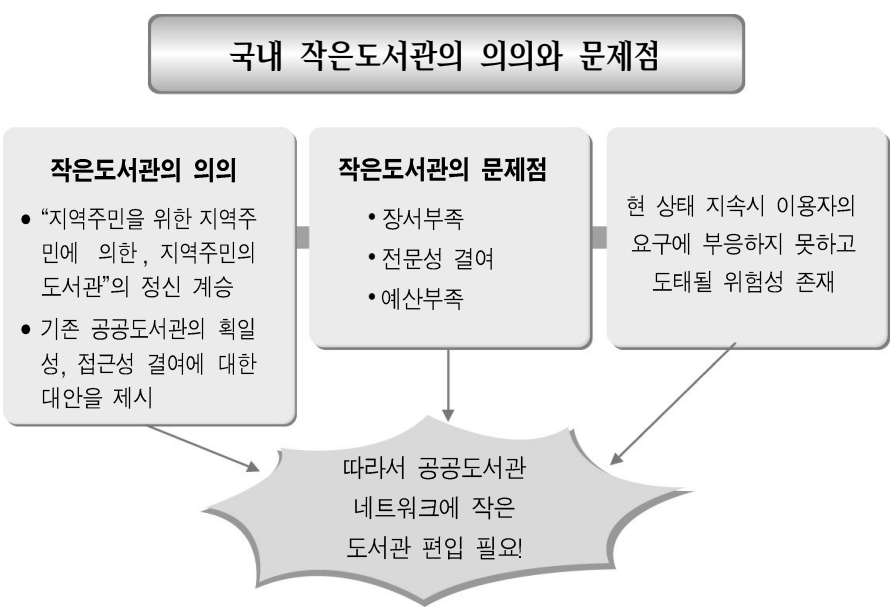
이 같은 희망은 최근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열람실을 전면 폐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동안 도서관에 대해 독서실 이미지가 굳어져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람실 폐지에 대한 반발도 극심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반발이 줄어들면서 이 같은 모델이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가치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로 포용해야 한다. 덴마크의 경우,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포함되지 못하는 작은도서관들은 점차 도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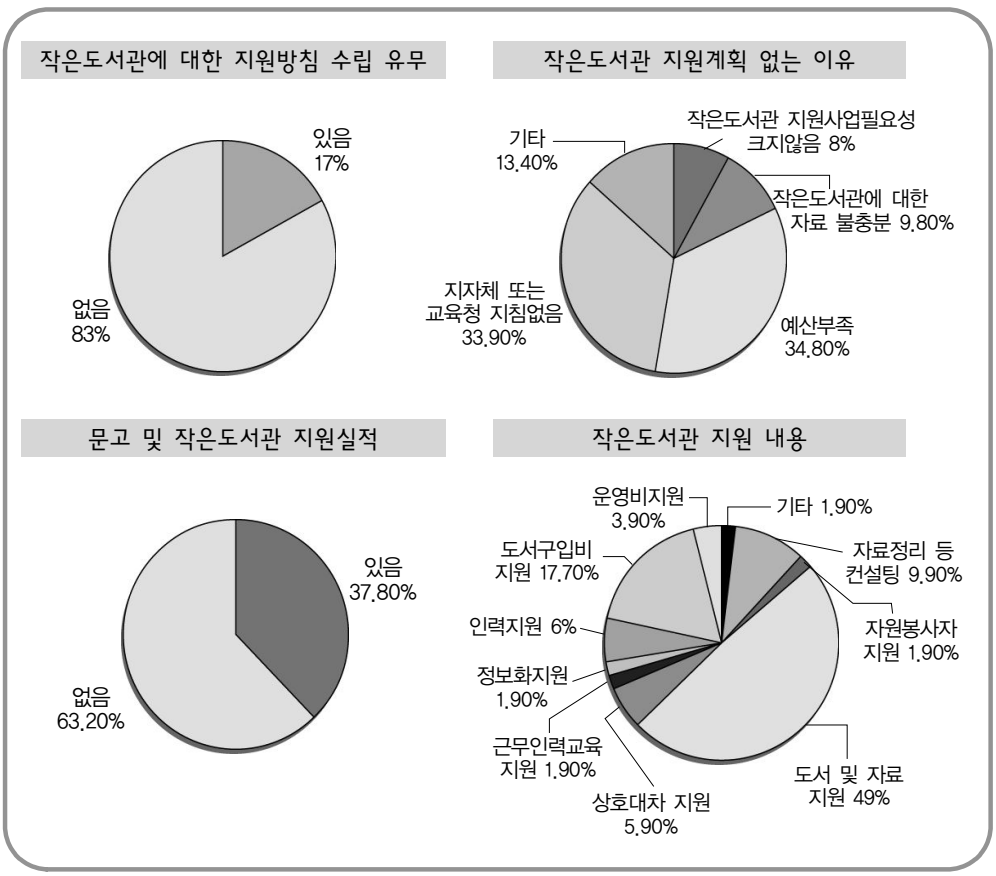
작은도서관이 현재처럼 민간의 자구책 차원에서 개별적인 형태로 존재한다면 향후 주민들의 장서 및 정보 요구가 더욱 커질 때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다. 실제로 1980년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작은도서관들도 예산난 등 문제로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겹쳐 상당수 도태되었다.

공공도서관 입장에서도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처하고 공공도서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을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망을 이루는 '분관(Branch Libraries)'으로 포용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림 8〉 국내 작은도서관의 의의와 문제점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포인트를 확장할 수 있는 거점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현재의 작은도서관들을 일괄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시스템 안에 포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 9〉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에 관한 통계자료

<그림 9>에서 보듯,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실적에서는 각각 17%, 38%정도에 불과하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내역도 대부분 자료지원, 도서구입비지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이 미약한 것은 공공도서관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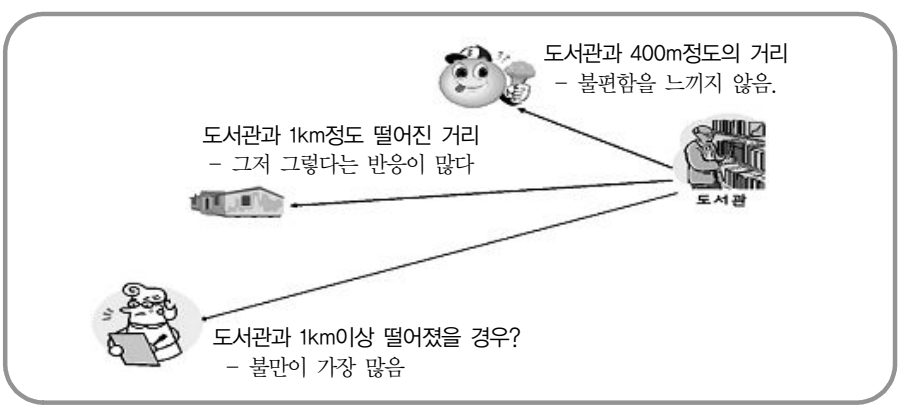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도서관 네트워크 내에 포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도서지원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독서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함께 운영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작은도서관의 선진형 모형

(1) 선진형 작은도서관의 기본 요건

첫째, 작은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34]을 통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중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부천시의 경우, 운영비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도서관 운영이 안정적이다. 반면 196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전개된 마을문고운동이 1980년대에 쇠퇴의 길을 걷게 된 주된 원인은 지속적인 자금난이었다.

둘째, 지역주민의 주거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도보 15분 이내)에 작은도서관이 위치해야 한다. <그림 10>은 1974년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연구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주지와 도서관과의 거리가 1km이내 일 때 가장 만족감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1974년 일본의 도쿄 스기나미구의 「도서관까지의 거리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의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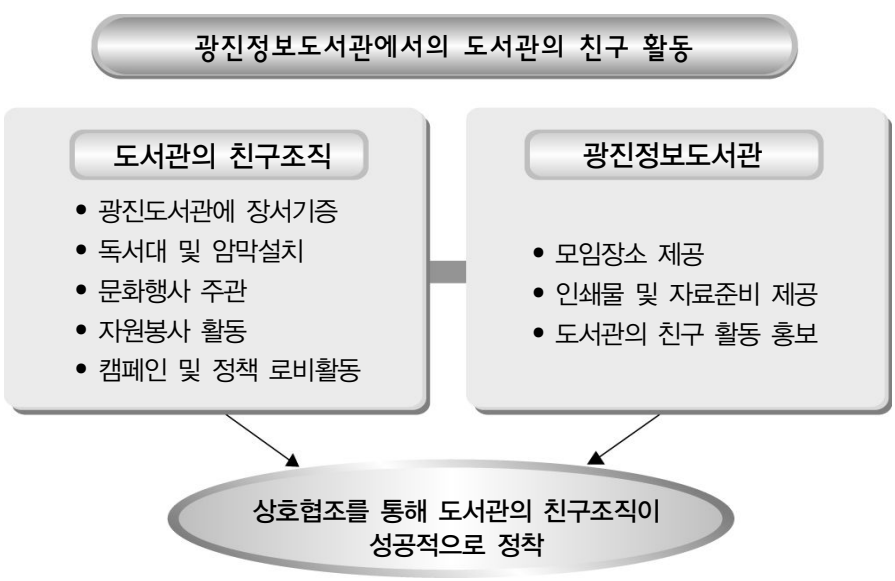
셋째, 주민친화적 프로그램(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한다. 국내에서 작은도서관 이용층으로 어린이와 학부모가 많고, 작은도서관의 여건상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

34) 지방자치단체의 경상회계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중장년 또는 노인대상의 생활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모임마당,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 장소 등으로 기능하고, 또한 '도서관의 친구(Friends of Library)'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서 든든한 지지층이 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이 겪는 각종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동반자이자 이용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진정보도서관에서 최초로 '도서관의 친구들(회장 : 여희숙)' 활동이 시작되었다. 지역주민이 도서관 자원봉사자 차원을 넘어 합심하여 '도서관의 친구들' 조직을 결성하였고, <그림 11>과 같은 활동과 도서관의 협력을 통하여 도서관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1〉 광진정보도서관의 '도서관의 친구' 활동

다섯째, 도서관의 3요소(장서, 사서, 시설)가 완비되어야 한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시스템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이 장서,

사서, 시설에 있어서 일정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순차적으로 사서가 상근인력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사서로는 전문적인 장서개발·자료조직·정보서비스 능력,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교육자로의 자질,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개척자 정신 등을 가진 사람이 초빙되어야 한다.

이 같은 모범사례로 부천시를 들 수 있는데, 부천시 경우 <표 11>[35]에서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시립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마다 1인의 사서와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계약직 형태이나 계속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용은 시보조금을 통해서 연간 4,0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인력운용에서 부천시 기준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11〉 **부천, 창원, 순천의 작은도서관 인력현황** (2006년 9월 현재)

항목	부천시	창원시	순천시
상근인력	1명+ 보조인력	2명	1명 또는 없음
사서여부	사서 100%	혼재	사서 없음
고용형태	계약직	계약직	자체운영
비 고	월급 외 근속수당 추가지급.	마을도서관 상근인력 있음.	상근인력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시에서는 월 30~50만원 인건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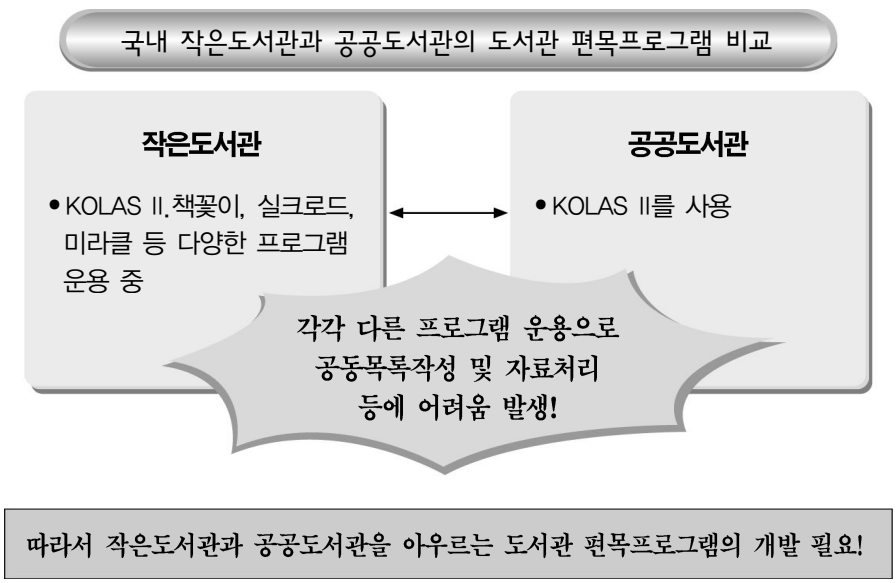
여섯째, 정부 서비스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앞장에서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기능 중에 행정서비스 거점 기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행정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일곱째, 도서관 협력망 허브(Hub)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작은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35) 이진우, 「작은도서관의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39쪽.

과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공동목록, 상호대차, 공동수서 등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부족, 전문성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첨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여덟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록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그림 12>와 같이 목록프로그램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 및 이용자 규정에도 차이점이 보이고 있다.



〈그림 12〉 국내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편목프로그램 비교

선진국에서는 중앙관에서 수서·편목 기능을 담당하고 분관들이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동일한 목록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상호대차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목록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선진적인 도서관망 형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여론을 수렴하고 면밀히 연구하여 바람직한 목록프로그램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2) 선진형 작은도서관의 미래상

<그림 13>은 선진국의 도서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연구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선진형 작은도서관 운영시스템 모형'이다.

〈그림 13〉 선진형 작은도서관 운영시스템 모형 예시도

그림에서 참조한 사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2007년 11월 현재까지 진행된 도서관 시스템을 바탕으로 미래발전적인 선진형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그림 13>과 같은 모형은 현 단계에서 모두 구현된 것은 아니고, 이 연구에서 '선진형 모형'으로 제시된 미래지향적 비전이다.

도서관운영 기본체계는 '중앙도서관 - 분관 - 작은도서관(공립 및 사립문고) - 이동도서관(거리도서관 & 상호대차용)'으로 구성된다.

중앙관은 전체도서관 운영의 계획 및 평가, 자료 선정·구입·정리·보존 기

능과 분관지원 등을 담당하고, 분관들(농소1동 도서관, 농소3동 도서관, 양정 염포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은 주민을 위한 정보서비스,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작은도서관 지원 및 협력 등을 담당한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민들(남녀노소)을 위한 실용정보의 제공, 공동체형·참여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 평생교육기능 등을 수행한다. 작은도서관 중 공립문고에는 사서가 1인 이상 배치되고 사립문고에는 상근인력 1인(가급적 사서자격증 보유자) 이상이 배치된다.

이동도서관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도서관 사이의 상호대차를 가능하게 하는 이동도서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내 더욱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는 이동도서관이다. 후자의 사례는 '미국의 거리도서관(Street Library)' 모델을 참고하였다.

선진형 도서관 시스템은 모든 도서관 사이의 상호대차를 가능하게 하는 도서정리(편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공공도서관-분관-작은도서관-이동도서관'으로 구성되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주민은 누구나 모든 도서관에서 장서를 원스톱(One-Stop)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거지역 도서관을 통하여 지역 내 모든 도서관의 도서를 빌려볼 수 있다. 나아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도 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해 향후 보급되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공용 목록 시스템 덕분이다.

작은도서관에는 지역주민의 삶과 일에 관련된 정선된 제반 정보가 제공된다. 지역주민은 작은도서관에서 정부의 각 부처에서 국민을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 행정정보와 혜택을 접할 수 있고, 개인이 구입할 수 없는 고급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고품질의 정선된 정보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서에 의해 제공된다.

작은도서관에는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일상적으로 기획되고 진행된다. 작은도서관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서가 구축되고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수시로 서로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동 운영한다. 이러한 선진형 프로그램 사례로는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북스타트(Book Start)' 등과 같은 세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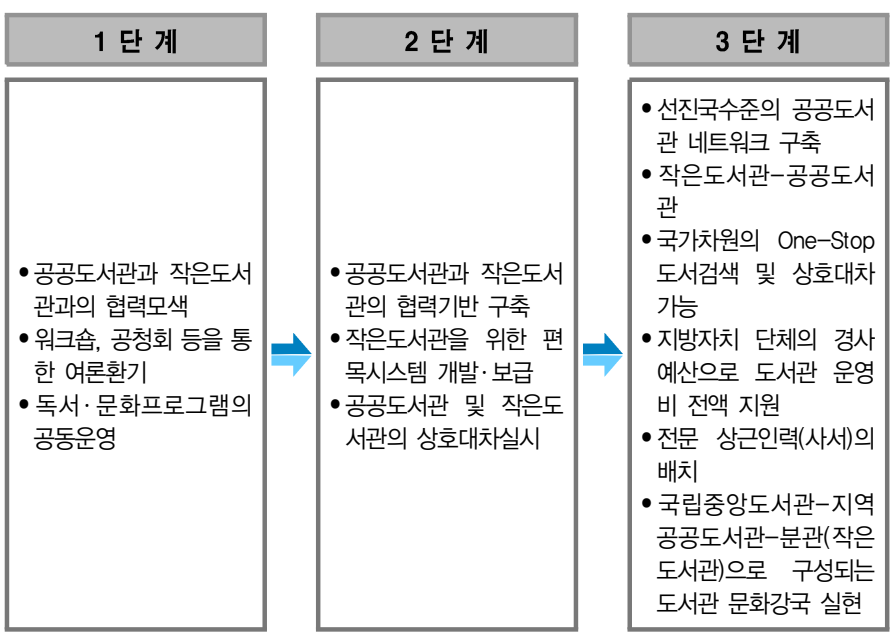
독서운동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선진형 모형을 구성하는 모든 도서관의 운영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경상예산에서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작은도서관은 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은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선진적인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경험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은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돕고 홍보하고 옹호하는 주체가 된다. 이로써 지역주민은 선진국수준의 '도서관의 친구(Friends of Library)'가 된다.

5. 선진형 모형 구현을 위한 로드맵

이상에서 제시된 '선진형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국내 공공도서관 인프라와 작은도서관의 여건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4〉 작은도서관의 선진형 모형을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

2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매뉴얼

I.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현황과 검토

1 국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1 대상별 프로그램 리스트

① 전체

- ○ 독서 : 가족독서문화행사, 독서마라톤, 독서릴레이, 다독자 가족선발, 이야기극장
- ○ 영화 : 가족과 함께 영화나들이, 무비월드, 주말영화상영
- ○ 강연 : 책과의 만남 특강, 작가와의 만남
- ○ 기타 : 요가, 작은 전시회, 가족놀이마당, 도자기핸드페인팅

② 노인

- ○ 실버 정보화 교육, 한글작문 교실, 인터넷 교실

③ 성인

- ○ 독서 : 성인독서동아리, 엄마들을 위한 영어동화책 읽기교실, 유아독서지도, 독서치료모임, 어린이 책 연구회, 이야기 마당
- ○ 강좌 : 부모 특강, 도서관특강, 어린이 책 강좌, 지역주민강좌, 도서관학교, 학부모를 위한 독서지도, 시민 문예교실
- ○ 기타 : 도서관 지킴이, 수공예, 뜨개질, 비즈 공예, 인형극동아리,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일, 문화기행 또는 체험학습

④ 청소년

- ○ 여름캠프, 중학생 독서논술 맛보기, 책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⑤ 어린이

- 독서 : 날마다 책 읽어주기, 독서 감상문 모집, 독서 감상화 대회, 독서왕 선발대회, 독서토론 모임, 독서퀴즈대회, 독서통장, 방학독서캠프, 어린이 독서교실, 어린이독서동아리, 옛 이야기극장,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독서지도, 책 읽기 프로그램
- 그림 : 그림책과 함께하는 미술 모둠, 미술관견학, 미술놀이교실, 석화공예, 수채화기법, 신나는 미술체험, 옛날이야기와 함께 하는 책 그림 대회
- 글쓰기 : 동화 속 친구들에게 편지쓰기, 동화로 배우는 한글 모둠, 삶을 가꾸는 글쓰기 모둠
- 강습 : 리본공예, 목공교실, 바둑교실, 북 아트, 생태교실, 어린이평화리더십교육, 역사논술교실, 염색교실, 영어노래교실, 영어동화교실, 영어회화, 일본어교실, 장서인 만들기, 종이 접기 교실, 풍선아트, 한문교실, 한지공예
- 연극 공연 캠프 : 동화구연대회, 마술 카페, 멀티동화극장, 문화기행 또는 체험학습, 문화체험프로그램, 바깥도서관, 박물관견학, 방학특강, 신나는 연극놀이, 우리 동네 보물 탐험대, 인형극 공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문화 답사, 즐거운 도서관 체험
- 기타 : 금요 슬라이드, 나만의 책 만들기, 놀이수학, 도서관에서 살아남기, 어린이기자단, 어린이금융경제교실, 작가와의 만남, 책 속 보물찾기, 천연비누 만들기,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숙제해요, 퍼즐, 신문이랑 놀아요

⑥ 유아

- 독서 : 이야기 들려주기, 유아독서교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주머니, 영어동화책 읽기교실, 동화랑 놀자, 책 읽어주는 엄마, 신나는 동화나라, 그림책 이야기, 책 먹는 아이,
- 놀이 : 레고닥터, 민속놀이, 인형극, 동화나라 종이 접기, 유아동화표현놀이, 책이랑 놀이랑, 동화연극놀이, 한 달에 한 번 유치원 한 반 나들이
- 체험 : 다도, 생활예절, 한복체험, 김치체험, 천연염색, 빵 만들기, 도서관 체험교실
- 기타 : 음악 및 미술교육, 만화영화상영

2 작은도서관의 지역별 유형

① 공동주거지역(아파트) 형

주로 공동주거 지역(아파트) 내 복지동(관리사무소, 자치회 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을 말한다. 거주자는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높으며, 생활수준도 고르다. 인구 특성상 어린이와 주부들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주민이 살고 있어 이용률이 매우 높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효과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사례 : 창원 상남 마을도서관, 대방마을 도서관, 마산 내서마을 도서관 등

② 단독주거지역 형

주민 자치센터 내 빈 공간을 활용 하거나, 독립공간을 자가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이용 주민 구성에서 주민들 간 소득 편차, 연령 편차가 심하며, 오래된 구도심이나, 상업 중심지 등 각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도 달라서 주 이용 대상자 파악, 프로그램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으로 오래되고,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도서관도 많이 있어, 이용자들은 지역 이용자뿐만 아니라 원거리 이용자들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 사례 : 창원 명서 마을 도서관, 고양 푸른꿈 도서관, 대구 새벗 도서관 등

③ 농어촌 형

마을 주민전체가 모일 수 있는 마을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특성상 어린이보다는 노인인구가 월등히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을 겸하고, 한글 작문교실 등 노인층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수행한다.

○ 사례 : 순천의 상사용암 작은도서관, 해용호두 작은도서관 등

3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범주

① 독서 중심 프로그램과 문화 중심 프로그램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중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독서

중심 프로그램과 문화 중심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독서 중심 프로그램은 책을 활용 하거나 책을 매개체로 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독서교실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 그림책슬라이드상영, 이야기가 있는 그림전시회, 그림책 포스터 전시회, 책 읽어주기, 북아트, 책속의 보물찾기 등을 들 수 있다.

문화 중심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교양프로그램부터 지역사회 의사 소통공간으로 행해지는 문화프로그램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 문화교양프로그램 : 도자기 핸드페인팅, 수채화, 서예교실 등.

○ 지역사회 의사소통 공간으로 행해지는 문화프로그램 : 지역사강좌, 지역 문화 유적 탐방, 지역의 전설 찾기 등.

② 수여형 프로그램과 참여형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단순 참가만 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수여형과 참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수업에서 학생 수가 많으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토론식 수업이 힘들 듯이 큰 도서관에서는 수여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작은도서관에서 그 특성을 잘 살린다면 참여형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다.

수여형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람과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결과가 나오는 것을 수여형이라 한다. 대표적인 것은 전시회와 강연, '저소득층 숙제도우미'이다.

참여형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기획 운영자는 최소 기획만 하고, 참가자의 적극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얼마나 발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말한다. 참여형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것으로 '연극교실'이 대표적이다.

③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 '한 책 한 도시' 운동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운동은 독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한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한 책'을 중심 매개체로하여 주민들이 함께 읽고, 이

를 통해 모든 주민이 함께 대화와 토론을 나누어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인쇄매체로서의 책을 단순히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연계되는 문화활동으로 확대 경험하게 함으로써 전체 도시가 책 읽는 즐거움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3년에 한국도서관협회의 시범사업으로 처음 소개되었고, 2004년부터는 여러 도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책, 한 도시'운동은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초기과정에서 무엇을 읽고 이야기 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데서부터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함께 읽기로 선정 된 '한 책'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도시규모의 지역사회개념에서 전개되고 있고, 공공 도서관이 속한 지역사회, 즉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가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한 도시'를 함께 강조해 진행되고 있는 운동이다. 독서 및 토론회 활동은 '한 책' 운동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독서모임이 참여하는 독서토론회(기존독서회를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최소3~4명이상으로 새롭게 추진 되기도 함)와 작가강연(토론)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에서 사서가 자신들의 서지기술과 네트워크조직능력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안내자가 되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와 토론 도움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작가가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마련 등 책을 읽은 후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계 하여 펼친다.

공공 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운동 주최 측에서 작가와 만남이나 시민 토론회, 낭독회, 연극공연, 음악공연 및 사진전 등의 행사를 벌이기도 하고, 선정도서를 바탕으로 한 라디오. TV프로그램 혹은 영화를 활용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까지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한 책, 한 도시'운동은 한시적 이벤트 위주활동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독서운동으로 정착되고 아울러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원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평가 될 필요가 있다.

사례 : 서산 - 서산시민 모두가 책 한권을 함께 읽는다면
순천 - 책 한권, 하나의 순천
부산 -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부산
서울 - 책 읽는 서울, 기초 예술, 책부터 시작이다.
원주 - 원주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으로 뭉치자.
익산 -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청주 -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

2 국외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현황

1 대상별 프로그램 리스트

① 어린이

○ 2개 국어 가족 스토리타임, 2개 국어 유아교실, 2개 국어 이야기교실, 가족 독서교실, 가족 차파티, 과학 매니아, 글쓰기 교실, 노래교실, 독서 치료클럽, 뜨개질 클럽, 마더구스 스토리, 마술과 풍선, 만들기 파티, 복장(Dress up) 게임, 북마켓 콘테스트, 블록 쌓기, 빙고, 소꿉놀이, 손놀이와 책, 숙제 도우미, 스페인어 스토리타임, 에세이와 시 콘테스트, 영화 매니아, 요리 프로그램, 유아 스토리타임, 음악 스토리타임, 잠들기 전 이야기, 창의성 예술 클럽, 체스 클럽, 초등학생 논픽션 독서클럽, 초등학생 스토리타임, 코스튬 스토리타임, 파자마 스토리타임, 퍼즐 스토리타임, 홈스쿨러를 위한 연극 그룹, 흑인 역사 이야기

② 청소년

○ 각본가 그룹, 게임 교실, 게임클럽, 그리기 클리닉, 니트 짜기, 댄스교실, 도서/CD 바꿔 읽기/듣기, 도서관 노크하기, 도서선택하기, 독서 그룹, 독서 토론과 만들기, 독서 토론클럽, 만들기 파티, 만화 그리기 교실, 만화 매니아, 무료 토요일 튜터, 밸런타인 스토리타임과 요리 교실,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세계 양서 읽기, 비전 탐구, 아름다운 단어 아름다운 글쓰기, 애니메이션과 만화 페스티벌, 연극 공연, 영화 만들기, 영화 토론클

럽, 이야기와 노래하기, 청소년 상담,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시간, 체스 경기, 초콜릿 만들기, 커플 콘테스트, 헤어 스타일링 워크숍, 흑인 역사 콘테스트

③ 성인

○ D.I.Y 교실, 가족 영화 상영, 고전 도서 클럽, 그림 그리기, 논픽션 독서 클럽, 니트 만들기, 동기 있는 삶 워크숍, 뜨개질 클럽, 마음 단련하기, 미스터리 파티, 구직도우미(Job Search), 세금 도우미, 소규모 경영을 위한 SCORE 상담, 스크랩북 교실, 스페인어 회화교실, 시 낭송, 양서 토론그룹, 여성 영화클럽, 여성을 위한 독서교실, 요리교실, 월요일 저녁 음악교실, 작가와의 시간, 작곡가 클럽, 재즈 교실, 저녁 독서 그룹, 지역과 가족 역사 시리즈, 창조적 글쓰기 그룹, 책벌레를 위한 에어로빅, 체스교실, 카드놀이, 퀼트 교실, 토론 그룹, 포토 에세이 교실, 하와이 요리, 회화 카페

2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① 어린이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 6세~12세 대상으로, 숙제도움, 컴퓨터 교육,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부모자원센터(Parents Resource Center) 운영 : 부모가 어떻게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와 상담 제공

○ 학교수업 공간 : 학교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도서관에 마련하거나, 혹은 학교 안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여 학교 수업과 긴밀히 협력

○ 숙제 도우미 프로그램(Homework Support Program) : 어른들이 아이들의 숙제, 오락프로그램, 사서를 도와줌. 이러한 활동들이 도서관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특별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됨(Queens Public Library)

○ 독서치료 클럽 : 책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잘못된 책읽기 습관을 지닌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이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Pinellas Park Public Library)

○ 어린이 도서관 콘테스트 :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는 것. "왜 우리가 네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하는지 25단어 이하로 말해줘? 라는 식의 질문을 제공하고, 우승하는 어린이에게 파티를 열어 축하해줌 (Phoenix, Arizona)

○ 과학 매니아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제공. 다양한 과학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실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줌(New Castle Public Library)

○ '홈스쿨링(Homeschooling, 재택수업)' 지원 프로그램 : 홈스쿨링이 늘어나면서 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홈스쿨링의 성취테스트 점수와 공공도서관의 방문 횟수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발견됨. 지역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은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을 잘 파악하고 잘 지내도록 해야 함. 사서들은 아이들에게 자료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고, 부모들에게 적절한 주제의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음. 도서관 투어 및 특별 프로그램 제공

②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 청소년을 다른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참여 :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 독서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하고, 배가(shelving) 등의 일을 돕게 함

○ Read Around the World :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10대 들에게 독서목록, 다문화 비디오 목록,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자료 제공(Virginia State Library)

○ 애니메이션과 만화 페스티벌 : 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티스트를 초청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Iowa City Public Library)

○ 청소년 상담 : 전문 상담사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주는 프로그램(Missouri River Regional Library)

○ 도서/CD 바꿔 읽기/듣기 :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제공. 정해진 날짜에 도서관 입구에 있는 창구에서는 서로의 도서와 CD를 바꿀 수

있음(Burke Country Public Library)

○ 애니메이션과 만화 페스티벌 : 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해 예술가를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진행(Iowa City Public Library)

③ 성인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서관이 후원하는 독서토론 모임으로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나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 진행

이 외에도 책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폭넓은 접근을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Home Front : Gettysburg 대학의 협조를 얻어 진행한 역사 프로그램. 책, 연설자, 필름 등을 활용하여, 참여하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여러 양상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생활에 대한 탐구(Adams County Library)

○ 소규모 경영을 위한 SCORE 상담 : 전문 상담가의 조언을 통해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음. 시작 및 유지에 대한 조언 및 아이템 선정 방법 등의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음.

○ 포틀럭 저녁 토론모임(Potluck Supper Discussion) : 월 1회 토론그룹들이 모여 각자가 마련한 음식을 가지고, 파티를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읽은 단편 작품, 시, 한 권의 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Old Town Library)

○ The Way We Work : 일(work)에 대한 가치와 믿음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20개 도서관에서 참여함. 5개의 테마, 즉 ①일(work)에 대한 서로 다른 세대의 태도, ②일(work)에 대한 남녀의 견해 차이, ③20세기의 다문화적인 일터(workplace), ④이민, ⑤기술과 미국의 일터에 대해 각각 토론한다. 도서관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최고의 테마를 선정하기 위해 지역 학자들과 협력한다. 이렇게 하면 참여자들은 그 지역의 일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직업 자체가 그 사람을 모두 대변하지 않으며, 이민자와 이주자를 스스로 연관해서 생각하게 된다. 적어도 1시간 30에서

2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진다(미국도서관협회 Public Programs Office).

○ Hand-on : 사진 크로핑(사진·삽화의 불필요한 부분 다듬기), 레이아웃, 마운팅, 잡지관리 등에 관한 스크랩북 만들기 워크숍(New Durham Public Library)

○ 온라인 구직도우미 : 직업을 구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준비를 도와주며 전자메일을 통해 관리(Cleveland Public Library)

④ 노인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 국립 노화 기구(National Council on Aging)'가 후원하는 노인을 위한 도서관중심의 인문학 프로그램

- 7개 지역으로 나누어 이루어짐
- 20~25명의 참여자들로 구성하고, 지역의 학자들과 협력하여 진행.
-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서관을 찾지 않는 노인 이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

○ 기타 컴퓨터기반 프로그램

- 컴퓨터 기반 도서관 서비스는 이용자와 도서관을 실제로 연결하는 도구이다. 특히 인터넷은 도서관과 이용자를 실제로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따라서 컴퓨터 기반 (문학) 자료의 제공, 온라인 강좌와 같은 컴퓨터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의 기본 프로그램이 되었다.
-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컴퓨터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에서도 충분한 컴퓨터 기반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컴퓨터 기반 프로그램의 조건 : 충분한 컴퓨터 기반 시설을 갖춘 공간 확보, 타 교육기관과는 차별화되는 작은도서관 상황에 맞는 컴퓨터 기반 교육 실시

3 선진국 독서진흥활동의 주요 특성

앞에서 살펴본 독서운동들은 모두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독서운동이라는 점과 더불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첫째,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책을 읽는 것이 강조된다. 관심을 가져주는 어른들과 대화하며 책을 읽는 데서 책에 대한 사랑과 자신감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된다는 믿음이 이런 활동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도서관의 노력을 넘어서서, 후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서관의 외부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재정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도서관이 내부에서 늘 수행해 오던 독서활동이 보다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원자 자체에도 다양한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책을 중심으로 혹은 매개로 한 다양한 매체,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고양시킨다. 독서를 장려하면서 인쇄매체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책에 대한 친화감과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독서와 더불어 토론을 중시한다. 토론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고양한다거나, 대화형 독서를 통해서 독서를 혼자만의 행위가 아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행위로 확장시키는 노력이 많이 보이고 있다. 토론을 통해서 책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교류함으로써 책과 독서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순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독서운동에서 강조하는 것이 눈에 뛴다.

다섯째, 독서운동의 지역반경이 확대될 수 있다. 한 지역에서 성공적인 독서운동은 다른 지역에서도 채택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형태의 독서운동이 동시에 전국에서 진행될 수 있다.[36]

36) 윤정옥,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진흥활동 : 다른 나라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2호(2007. 6),15-17쪽.

4 우리나라의 독서운동과 비교할 수 있는 사항

첫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로 진행된 것은 어린이에게 책이 가지는 본래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책읽기가 되기보다는 표현 중심의 동화구연식 수업이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정한 틀에 매여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우리나라 독서활동은 책 본래에 대한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남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외국의 독서교육은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고 어린이 스스로 듣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왔다. 이것은 '책 읽는 것'이란 단순하고 평범한 활동 하나에서도 서로가 책에 대한 자신만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성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독서 활동은 단순 교양 독서회에 그쳤다. 하지만 외국은 오래전부터 사회문제, 관심주제, 여성문제 등 특정 주제별 독서모임이 활성화 되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도 일부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여성문제, 사회문제 독서토론반이 조직 운영되어 왔다. 또한,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독서치료프로그램은 기존의 평범한 교양독서회에서 한 발 나아간 대안적인 독서활동으로 높이 평가될 만하다.

셋째,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외국은 오래전부터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서로 협력하여 독서진흥활동과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프로그램 교류는 자료정보 공유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작은도서관의 역동성 있는 프로그램과 공공도서관의 규모성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어우러진다면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가능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도시 한책읽기 운동은 미국에서 도입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 등 지역사회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망은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작은도서관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시민단체, 기업과 사회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자연스럽게 독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5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명

1 작은도서관의 특징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재조명함에 있어서 작은도서관과 일반도서관의 장단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서량 1만권 안팎에 관리운영자 2~3명 정도의 도서관을 말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기준을 제시 하는 것은 각 실이 분리되고, 수서, 정리, 봉사, 프로그램 관리 등 업무가 분리된 도서관과 달리 수서부터 정리, 열람봉사, 프로그램 관리까지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2~3명의 인원이 통합 관리 운영하는 곳이어야 차이를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작은도서관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예산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둘째, 운영자와 이용자의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셋째, 후원회, 자원봉사자 조직이 유기적이고 협조적이다.

넷째, 지역현안이나 사업에 적극적이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이유로는 예산과 인력 운영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후원회 조직이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서협동조합이나, 8-90년대 노동도서원의 활동과도 그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또한 여기에 맞춰 일반도서관에서는 쉽게 할 수 없었던 많은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왔다.

2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방법 – 도서관의 친구들(자원봉사자) 활용

①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큰 도서관과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용자와 운영자의 친밀도와 결속력이 높은 점을 활용하여 작지만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들 가운

데 갖가지 능력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을 먼저 도서관의 친구들(자원봉사자)로 만들어 조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프로그램 수강자, 진행자, 홍보요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강자에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진행자에겐 자신의 능력을 도서관을 통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운영자에겐 프로그램 기획과 함께 강사, 수강자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6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의 장단점과 주의점

1 프로그램 운영의 장점

첫째, 도서관 이용자들을 더욱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둘째, 독서라는 고독한 활동을 사회적 활동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셋째, 어린이에게는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습관을 길러주고, 성인들에게는 도서관이 사회 재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넷째, 도서관 대외 홍보와 마케팅 기능도 수행한다.

다섯째, 학부모와 어린이의 의사소통 공간이 될 수 있다.

2 프로그램 운영의 단점

첫째, 도서관 서비스에 쓰여야 할 자원을 빼앗아 갈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하다보면 도서관 본래 목적과 역할인 자료를 통한 서비스를 잃어버릴 수 있다.

3 프로그램 운영의 주의점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제공할지를 결정할 때는 프로그램 총 경비(자료, 진행자 인건비, 업무시간, 공간 이용, 홍보, 기획, 평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쓸 공간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도서관에 쓰여야 할 공간과 비용을 빼앗아 가는 경우도 생각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창원의 한 마을도서관 사례이다.

위탁단체는 도서관 내에 얼마나 좋은 책으로 장서구성을 하고, 이용자에게 얼마나 질 높은 참고서비스를 하는데 높은 평가를 하기보다는 얼마나 신선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 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도서관 위탁운영단체에선 유능한 사서보다는 유능한 프로그램 기획자를 요구하고 있다[37].

이 이야기를 볼 때 사실상 도서관 운영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도서관의 임무를 침범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목표

도서관은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표출하고, 해소해 나가는 기관이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일부러 찾아가야하는 곳이 아니라, 산책 가듯이, 구멍가게에 생필품 사러 가듯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공간이다. 따라서 주민들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기 가장 좋은 공간이다.

한편으로 사회 교육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에서 하기 힘들거나 심화가 필요한 것을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유형에 따라 예체능영역, 취미영역, 자기 계발영역 등으로 나눠지는데, 이미 도서관뿐만 아니라,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때 도서관에서도 굳이 많은 시설과 비용을 들여가며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목표는 지식정보추구, 공동체 지향, 소외자 배려, 이렇게 세 가지 목적별 프로그램 특징을 나눌 수 있으며, 이 목적별 프로그램은 다시 영아, 유아, 초등, 청소년, 성인, 노인(은퇴자)으로 연령대별 특징을 나눌 수 있다.

37) 창원 지역 마을 도서관 사서 A와 인터뷰

1 매뉴얼소개기준

작은도서관 이용자 대부분이 어린이와 주부들이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 도서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극, 어린이 독서회, 동화구연, 초등 견학 프로그램은 여기서 소개하지 않는다.

여기서 소개 하는 기준은 잘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특징이 있는 프로그램과 각 유형별 대표 프로그램에 한하여 소개한다.

2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목적별 특성

① 지식 정보를 추구 하는 프로그램

도서관의 특성인 '지식과 정보의 소통 공간'이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서자료, 비도서자료(인터넷,CD-ROM, DVD따위)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른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이루어야한다.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독서교실, 미디어교실, 독서회, 작가초청강연회 등을 들 수 있다.

② 공동체를 지향하는 프로그램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의 소통 공간이란 특성은 달리 말해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공간을 말한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붕괴된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은 연령과 계층이 소통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이 함께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어야 한다. 전래 놀이교실, 풀꽃 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

③ 소외된 자를 돌보는 프로그램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 이어야 한다. 도시사회에서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큰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어야 한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실, 장애 어린이 독서교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연령대별 특성

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은 특정 연령(유아나 초등, 특수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되, 전 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그림책 포스터 전시회, 코스튬 플레이, 책속의 보물찾기, 소식지 만들기 등이 있다.

②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갓난아기부터 36개월(일반적으로 유치원 입학 전)까지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일부 어린이집에 다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내며 생활습관, 기초언어를 익히는 시기이다. 프로그램특징으로는 대상 연령인 영아들에게 특정영역(언어, 음악, 미술, 신체 따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성장에 따른 영역이 골고루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된다.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북스타트 프로그램과 북스타트 플러스, 엄마랑 아기랑 등을 들 수 있다.

③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유아기는 여기서 유치원 입학연령인 우리나이로 5살에서 7살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영역이다. 이 시기 어린이는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사회성과 언어, 지식을 쌓는 시기이다. 이때 책 읽는 분위기만 잘 만들어 주면 엄청난 양을 읽는 시기이면서, 이때 독서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린이가 평생 동안 책과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멀어지느냐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따라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낱말에 해당하는 책 찾기 놀이, 그림책 읽어주기, 표현놀이, 그림책 슬라이드 보기, 동화 구연 등을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들 수 있다.

④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초등학생은 이미 어느 정도 사회성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부모나 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때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독서나 미디어를 활용하여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편으로 이 시기에는 잘못된 독서 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들에겐 더 늦기 전에 독서습관을 바로 잡아주고 도서관에서 정보자료를 활용 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 좋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독서치료, 독서교실, 독서상담, 미디어 활용 교실 등을 들 수 있다.

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청소년기는 자아가 형성 되면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치와 확신을 심어 줄 수 있으며, 부모나 친구가 아닌 제3자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청소년 미디어교실, 청소년 독서 토론회, 역사 문화 기행 등을 들 수 있다.

⑥ 성인 대상 프로그램

성인들은 기초적인 학교교육을 벗어나, 자아실현을 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문제는 자녀교육, 부부관계, 사회생활문제 따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들에게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자녀교육, 취미를 통한 자기계발,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 이런 프로그램은 자녀 독서 교육 강좌, 독서회, 역사문화기행, 작가초청 강연회 등을 들 수 있다.

⑦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

성인 활동기를 지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그동안 쌓았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하여 새롭게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과 생활문제에 치우쳐 자기계발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욕구를 해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봉사 프로그램으로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우리 동네 이야기,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으며, 자기계발이나 욕구를 해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노인 독서회, 문맹자를 위한 한글교실을 들 수 있다.

II.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매뉴얼

1 그림책 포스터 전시회(대상 : 전체)

1 역사와 목적

그림책 속에 있는 그림만으로도 무척 다양하고 좋은 미술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이 그림을 집 거실이나 아이들 방에 걸어 놓으면 그 그림 자체만으로 훌륭한 예술 작품이다. 이런 그림책 속에 있는 한 장면만 떼어내어 놓은 것을 '그림책 포스터'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아트 포스터'또는 '복제화'란 이름으로 일반화 되어 있으며, 미술전문 매장에서 널리 판매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그림책 아트포스터를 모아서 전시회를 열면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림책 아트포스터전이 처음 열린 것은 1999년 9월 당시 PC통신 하이텔 내 소모임 '하이텔 동화 읽는 어른(당시 대표 시샵 : 최진욱)'에 의해서이다. 초대 시삽이자 현재 용인 느티나무 도서관 자문위원인 이혜영의 개인 수집품 40여 점으로 서울 송파도서관 전시실에서 처음 열었다. 이후 지역 수집가들의 노력으로 경남지역의 도서관과 동화 읽는 어른을 중심으로 전시회가 4-5년간 꾸준히 열렸다.

2 특징

그림책 포스터 전시회를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기 좋은 주된 이유는 그림책 포스터 수집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 있다. 그림을 굳이 액자에 넣지 않아도 되고, 액자에 넣더라도 그림 하나에 2만원 안팎이면 액자를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3 프로그램 진행

① 자료 수집

우리나라에는 판매용으로 제작된 그림책 아트포스터는 제대로 없다. 다만 출판사에서 홍보용으로 95년 무렵부터 길벗어린이, 보림, 한림, 재미마주 등 일부 그림책 전문 출판사에서 조금 씩 만들어 어린이 전문서점을 중심으로 도서구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 해왔다. 이것이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점점 제작하는 출판사가 넓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림책 포스터는 100종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때 구하지 못하면 다시 구하기 힘든 것이 많다.

예전에는 각 지역에 어린이 전문서점이 있어서 어린이 전문서점을 자주 이용하면 그림책 포스터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어린이 전문서점이 많이 줄어들어 어린이 전문서점을 통해 포스터를 구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림책 포스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주 책잔치', '서울 국제 도서전', '와우북 페스티벌', '남이섬 책나라 축제', '부산 어린이 책 잔치' 등 어린이 책 전문 행사에 가면 그곳에서 포스터를 수집 할 수 있다.

둘째, 행사를 하기 전 어린이 책 포스터를 만들어 온 출판사에 협조를 부탁하면 홍보팀에서 출판사에 있는 포스터를 보내 준다.

셋째,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작가에게 저작권을 주고 일부 자체 포스터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것이 있다.

② 전시 방법

액자를 만들 때 그림 한 점에 2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30점을 액자로 제작할 경우 60만 원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은 만만치 않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그림만 구한 뒤 액자를 제작할 때는 미리 후원자나 이용자에게 전시회가 끝난 뒤 가져 갈 수 있도록 사전 판매를 하면 도서관에서 큰 비용 부담 없이 액자 제작비를 마련 할 수 있다. 액자를 제작 한 뒤 그림을 야외 전시 할 때는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이젤에 그림을 걸어 놓으면 된다. 이젤은

도서관 내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수채화반 유화반을 운영하고 있으면 이젤이 있으며, 없을 경우는 가까운 미술학원에서 빌리면 된다. 실내에서 전시 할 경우는 서가 사이에 걸어 놓으면 된다.

③ 전시 구성

전시된 포스터는 한 작품의 그림이 전시되는 원화전시회와 달리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작품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전시를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④ 효과

전시된 다양한 책의 포스터와 함께 주제를 가지고 책을 보게 되면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새롭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림책의 포스터 속에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며,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책에 대해 관심도 가게 하기도 한다.

또한 무엇보다 사서가 그림해설을 해준다면, 평소에 단순히 책만 빌려가던 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토크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시된 그림책 포스터나 엽서 가운데 하나를 가져 갈 수 있게 함으로써 단순히 보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 하나를 가져간다는 느낌도 줄 수 있게 한다.

4 프로그램 사례

2004년 6월 울산 북구 공공도서관에서 주최한 그림책 포스터 전시회로 70여종 200여 점으로 11개 주제로 나누어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해외에서 상 받은 우리나라 책 포스터 – 노란 우산 외 4점(볼로냐 아동도서전, 뉴욕 타임스 '올해의 책 베스트 10'에 선정된 우리나라 그림책)
② 함께 찾아보아요 - 도서관은 커다란 책 외 3점(그림책 포스터와 이미지 포스터 가운데 아이들이 찾아보며 즐길 수 있는 포스터)
③ 전통문화 그림책 - 고인돌 외 8점 (전통문화와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림책 포스터)

④ 외국 그림책 포스터 - 아기여우와 털장갑 외 5점(외국 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책 포스터)
⑤ 외국 아트포스터(수입용) - 펭귄 피터 외 3종(외국에서 제작되어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된 아트 포스터)
⑥ 우리나라 아트포스터 - 민들레 외 6종(우리나라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아트포스터)
⑦ 이 밖에 어린이 책 포스터 - 오줌 멀리 싸기 시합 외 10여 점(우리나라에서 출간 된 어린이 책과 그림책 포스터)
⑧ 그림책 엽서 - 도토리 계절 그림책 외 100여 점
⑨ 그림책 버튼 - 씹지 않고 꿀꺽 벌레는 정말 안 씹어 외 20여 점
⑩ 컵 받침 - 한림 012 그림책 컵 받침 20여 점
⑪ 띠 벽지 - 보리 개똥이 그림책 띠 벽지 8점

이 같은 주제와 함께 관련 도서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하여 전시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또한 출판사의 협조를 받아서 전시회를 찾는 이들에게 그림책 포스터나 엽서를 한 점씩 가져 갈수 있게 했다. 더불어 미술관의 작품 해설사인 '도슨트'처럼 찾아오는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에게 그림의 기법, 유래, 숨겨진 내력까지 설명을 해 주면 이용자들은 그 책을 다시 도서관에서 찾게 된다.

2 그림책 원화 전시회(대상 : 전체)

1 목적

그림책의 그림이 아무리 선명하고, 잘 인쇄 되어 있더라도 이런 그림은 인쇄물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원래 그림보다 축소되고, 잘리기도 한다. 특히 단순한 물감이 아닌 천이나 종이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된 그림일 경우 원화는 그림책 속의 인쇄된 그림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원화를 보는 것은 새로운 예술 감각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2 방법

예전에는 지역이나 작은도서관에서 원화를 감상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

다. 1995년 무렵 전국 어린이 전문서점을 중심으로 원화 순회전시회를 한 적이 있으나, 이 때 원화훼손이 너무 심각해서 한 동안 원화 전시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출판사에서 홍보 목적으로 원화 순회전시회를 자주 열고 있다. 따라서 시기와 조건이 맞으면 원화 전시회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3 장단점

원화의 크기와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내용의 그림이 20장~30장이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 질 수 있다.

3 책 속의 보물찾기(대상 : 전체)

1 목적

책 사이에 보물을 숨겨 놓고, 이용자가 책을 읽다가 보물을 찾아서 가져오면 소정의 선물을 주는 것이다. 책 내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즐거움을 줌으로써 책을 읽는 즐거움을 증가 시킬 수 있다.

2 방법

책 속에 일정한 쪽지 형태의 보물을 숨겨 놓는다. 이때 도서관내 장서량이 많을 경우는 숨겨놓는 보물의 범위도 넓어지고, 숨겨진 보물의 회수율 또한 떨어진다. 따라서 장서량 6천 권~1만권 안팎 규모의 도서관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으며, 장서량이 더 많을 경우는 숨겨 놓는 범위를 일정 분야로 한정 하는 것이 좋다. 보물을 찾아오면 도서관에서 정한 상품을 준다. 상품으로는 도서관에서 정한 기념품이나 책 등이 좋다.

3 효과

책을 보다가 우연히 찾은 보물은 책 읽는 기쁨을 훨씬 더 높여 준다. 도서관 여건이 허락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이용자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도 될 것이다.

4 코스튬 플레이(대상 : 전체)

1 목적

사전상의 용어는 '배우에게 시대에 맞는 의상을 입혀 볼거리를 제공하는 연극이나 영화'를 말하는데, '코스프레'란 용어로도 많이 쓰인다. 책 속 등장인물처럼 차려 입고 벌이는 행사를 말한다. 도서관 기념행사나 축제 때 도서관 홍보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준비

코스튬 플레이는 동화나 그림책 속 캐릭터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집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참가 인원, 소품 조달 가능여부, 주변 환경 등을 잘 파악해야 하며, 가능한 많은 이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잘 알려진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옷이나 소품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없는 것은 만들어야 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목소리나 대사, 행동 따위도 사전에 연습을 해야 한다. 이때 가능하면 짧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에 따라 서 너 가지 대본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

3 시행

공원이나 도서관 마당 같은 특정 장소에서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일정한 거리를 행진하는 것도 좋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할 수도 있다. 이때 단순히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역할에 맞는 대사나 흉내를 같이 내어야 한다.

4 사례 – 청주초롱이네 도서관

2001년 10월 28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동화나라 축제'에서 초롱이네 도서관에서는 20여종의 책 속 등장인물들을 코스튬 플레이에 등장시켰다.

5 소식지 만들기(대상 : 전체)

1 목적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비용과 인력 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때 마을도서관 소식지를 이용자 스스로 만들면 이용자가 도서관에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된다. 또한 지역광고 형태로 도서관 주변 상가의 후원을 받으면 제작비용도 줄일 수 있다.

2 준비

기자들을 모집하고 편집팀을 구성 한 뒤 먼저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사 쓰는 법, 내용편집기술 따위를 가르쳐 줄 '기자교실'을 먼저 열어야 한다. 이후 도서관에서는 소식지에 필요한 예산과 발행 예정 부수 따위를 선출된 편집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시행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이 함께 모여 편집 팀을 구성 할 때는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야 하고, 또한 내용을 편집할 때는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을 해야 한다.

4 사례 – 창원 대방마을 도서관 소식지 '대방마을'

대방 마을도서관 소식지는 달마다 한 번씩 발행된다. 이 소식지가 다른 도서관 소식지와 다른 것은 이용자 스스로 편집장과 기자(어린이와 주부들로 구성)들을 뽑아서 제작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과 책 관련 내용으로 채워진 다른 도서관 소식지와 달리, 건강정보, 학교행사, 복지관 행사, 독자 투고 글, 알뜰장터, 생활의 지혜, 마을 소식 등 말 그대로 마을 신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발행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기자들의 모임 방 제공, 소식지 배포처 역할을 한다. 또한 소식지가 나오면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각 가정과 상가에 배포하기도 한다.

6 풀꽃 나들이(대상 : 전체)

1 목적

우리 주변에 이름 모르는 풀꽃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이런 풀꽃들은 모두 제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름을 모를 때는 관심이 없어도, 이름, 유래나 전설, 생태 따위를 알고 나면 작은 풀꽃에도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풀꽃뿐만 아니라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질 수 있게 된다.

2 진행방법

① **준비** : 풀꽃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모여 생태도감, 인터넷 사이트, 사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② **내용** : 계절별로 지역별로 피는 꽃이 다르므로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풀꽃을 볼 수 있다. 이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도감을 활용하여 사진이나 그림 속의 풀꽃과 실제 풀꽃의 차이점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를 활용하여 사진을 찍거나 스케치북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아울러 먹을 수 있는 풀은 채취해서 조리를 한 뒤 식구들이나 회원들과 생각을 나눌 수도 있다.

③ **평가** : 멀리 나가지 않아도 아파트 주변이나 하천, 들에도 계절을 따라 많은 풀꽃들이 피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자유롭게 이동하는 동물과 달리 풀꽃은 시기만 맞으면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3 프로그램 사례

창원 상남 마을도서관, 마산 푸른 내서 주민회

7 북스타트(대상 : 영아)

1 목적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도서관에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사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시작이자 전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북스타트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사업(북스타트 플러스)이 개발 운영되고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북스타트의 범주에 들어간다.

특히 영아기의 특성상 부분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활동, 놀이 활동, 인지 활동 모두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다.

2 역사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책으로 인생을 시작하자'는 캐치프레이즈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서울 중랑구에서 시범 실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3 내용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는 목적, 방법 등을 도서관을 찾는 대상자에게 설명을 하면서, 책과 책가방, 북스타트 소개 책자, 도서목록, 책 읽어주는 방법이 들어 2~3권의 책을 나눠 주어 평생 동안 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려서부터 올바른 책 읽기를 하면 창의력, 언어능력, 이해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책이 지식 습득의 수단이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다가가게 함으로써 책과 친해지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4 진행방법

① 준비 : 북스타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에 북스타트위원회(운영위원회와 담당자, 자원봉사자)를 꾸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1인당 1만 원 정

도). 확보된 예산과 운영위원명단을 북스타트 한국위원회(02-3675- 8782)에 알려주고 북스타트 실행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이때 교육 대상자는 도서관 실무 담당자와 자원봉사자이다.

② **진행** : 북스타트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는 아기 엄마에게 책 읽는 법, 책이 주는 효과 등을 교육하고, 책 꾸러미(책 2~3권과 소개 책자 3권, 가방)를 준다.

③ **평가** : 북스타트 한국 위원회의 교육을 받아 시행하고 있지만, 단순히 책 꾸러미를 나눠 주는데 그치는 곳도 있고, 도서관 이용법, 책 읽는 법, 부모의 자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북스타트 진행자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한다.

5 프로그램 사례

① 창원 대산 마을 도서관(창원시 대산면 소재)
② 전국 각 기적의 도서관, 공공도서관

8 북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대상 : 영유아)

1 목적

북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은 도서관문화의 확산에 근거를 두고,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양육자가 책을 읽어 줌으로써 가족 유대성이 강화되고 유아기부터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2 대상

만2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아(저소득층, 장애가족, 이주여성 가정의 유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3 진행방법

① **준비** : 대상자 및 수량 파악

② **진행** : 북스타트와 같이 주 1회 정도 날을 정해서 대상자에게 도서관에 직접 찾아오도록 하거나, 도서관에 오기 힘든 장애가정에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

③ **내용** : 그림책 2권, 가방, 기념품(종합장, 크레파스, 북스타트 프로그램 안내책자, 북스타트 엄마아빠 안내책자, 북스타트 플러스 안내문)을 나눠 주면서 책과 지속적으로 친해지게 한다.

4 프로그램 사례

2007년 9월 처음 전국의 북스타트 진행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예정.

9 엄마랑 아기랑(대상 : 영아)

1 목적

① '책을 첫 장난감으로 도서관을 첫 외출 장소로, 도서 대출증을 첫 주민카드로'라는 모토로 함

② 어머니가 생애 첫 교사로서 신뢰감을 기반으로 건강한 어린이의 성장을 보장하며 책과 친근하게 성장하도록 함

③ 어머니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어머니들 스스로의 성장에도 기여하여 육아시기가 여성능력 개발의 휴지기가 아닌 진정한 가치달성의 준비 시간이 되게 함

④ 도서관 문화 확산을 통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도서관의 사회적 의무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됨

2 대상 – 1~2세, 3세, 4세, 5세 아기와 엄마

3 진행방법

① **모집** : 1년 단위 모집

② **형태** : 학기 중은 스스로 학습, 방학은 강의 제공과 특별 프로그램 운영

③ **시간** : 연령별 주 1회 1~2 시간

④ **내용** : 교육실과 열람실을 충분히 활용하여 책을 매개로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반별 단계에 맞춘 책놀이 프로그램을 어머니들 스스로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돕는다. 또한 어머니 커뮤니티 형성으로 육아정보 교환의 장을 제공하고, 놀이, 만들기, 구연동화, 교구제작 등 전문가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능력 계발 기회를 만든다.

⑤ **진행** : 참가자들이 연령별 반을 편성하여 학습한다. 반별 반장과 총무를 선출하여 반장 지도하에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순번을 정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월 1회 담당 직원과 협의 후에 연합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월 1회 정도 모든 반 임원 연합 회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반별 프로그램 정보교환 및 연합프로그램 내용 일정을 협의 하며, 방학 중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⑥ **평가** : 어머니와 아기의 정기적인 도서관 출입을 유도하고, 아버지 참가 프로그램을 진행시킴으로써 가족단위의 도서관 문화 확산을 꾀할 수 있다. 더불어 자생적 어머니 동아리 탄생과 육아에 충실한 시기가 부모의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다. 아버지의 참석을 유도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해체 혹은 아버지의 역할약화라는 사회문제에 대응한 프로그램이 되어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4 프로그램 사례 : 청주 기적의 도서관, 진해 기적의 도서관, 부평 기적의 도서관

10 그림책 읽어주기(대상 : 유아)

1 목적

이야기 들려주기는 일반적인 도서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글자를 읽지 못하거나 읽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 주는 것이다. 이 그림책 읽어주기는 대상이 한두 명으로 매우 적거나, 진행자가 대상자의 성격과 이해력을 잘 알고 있는 경우는 그 대상자에 맞는 책을 선정해서 읽어 주면 된다.

2 준비 – 책 선정

① 그림이 선명한 것
② 이야기 전개가 빠른 것
③ 구어체 문장일 것
④ 한 면에 글이 너무 많지 않을 것
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
⑥ 진행자와 대상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

3 시행

① 사전 이야기 단계 : 진행자는 읽어 줄 책을 서너 번 읽으면서 호흡 장소, 목소리 높이 조절부분, 대상자와 질문답변 부분 등을 점검해 놓는다.
② 책을 읽어주기 전 읽어 줄 책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대상자와 질문을 주고받으며 관심을 모은다.
③ 책을 읽는 사이에 계속 질문을 주고받으며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한다.
④ 대상자 스스로 책 속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⑤ 책을 다 읽은 뒤 책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읽은 책의 일부분을 다시 꺼내어 읽어주면서 마무리한다.

11 표현놀이(대상 : 유아)

1 목적

스스로 책읽기가 어려운 유아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해서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으로, 책을 읽고 난 뒤 책에 있는 내용과 관련 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해 보는 놀이이다.

2 대상 – 6~7세

3 방법

진행자가 먼저 책을 읽어 준다. 책을 읽어 준 뒤 책에 있는 내용 전체 또는

부분을 활용하여 함께 표현해 본다. 예를 들어 보림 출판사의 '떡잔치'를 읽고 화전 부치기, '야채로 도장 찍기'(요시다 기미마로 지음, 한림)를 읽고 야채로 도장 찍어 보기,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니카가와 리에코 지음, 한림)를 읽고 빵 만들어 보기, '눈사람 아저씨'(레이먼드 브리그스 지음, 마루벌)를 보고 눈사람과 크리스마스트리 만들어 보기기 등을 할 수 있다.

4 사례

① 기차 ㄱ ㄴ ㄷ(박은영 지음, 비룡소)
② 먼저 진행자가 책을 읽어 준다. 그리고 기차놀이를 먼저 해 본다(이때 전래동요 기차놀이를 사전에 익혀둔다).
③ 기차놀이를 할 때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는 터널을 만들고, 터널에 갇혔을 때 진행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자음 주머니를, 다른 한 사람은 모음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면서 갇힌 어린이에게 자음주머니에서 글자 하나를, 모음 주머니에서 글자 하나를 꺼내어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만들면 통과 시킨다.

12 유아를 위한 단체 견학 프로그램(대상 : 유아)

1 목적

많은 도서관에서 도서관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도서관견학을 원한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일 경우 견학을 요청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유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유아용 견학 프로그램이 별도로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는 것은 책과 친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2 대상 – 유아(6~7세)

3 진행방법

① **준비** :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연령은 4~7세 정도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공통된 도서관견학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는 없다. 4~5세 아이들에게 스스로 독서하라고 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최소한 글을 읽을 수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6~7세 나이의 어린이들로 견학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② **내용** : 초등학생 대상 도서관이용 교육은 분류표의 이해, 책 찾는 법, 도서관 예절 등이 되지만, 유아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절만 교육하도록 한다.

③ **유아를 위한 도서관 예절 교육**

- ○ 책가지고 장난치지 않기
- ○ 너무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않기
- ○ 다 본 책은 한 곳(책 바구니, 북트럭)에 모아 놓기

④ **유아를 위한 자료 소개**

유아들이 좋아하거나 볼 수 있는 책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를 소개할 필요는 없다. 유아들이 즐겨 보는 책은 대부분 일반 그림책과 과학 그림책이다. 이러한 책들이 있는 서가를 돌면서 소개를 한다. 이때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동물, 꽃 등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개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다. 그리고 그림책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옛이야기 가운데 어떤 장면을 들려주면서, 제목을 말하게 하거나 책 속 캐릭터의 특징을 이야기하게 한다.

책 소개 마지막에 다음 단계로 이동할 때는 도깨비가 방망이를 들고 외우는 주문인 '뚝딱!'이나 마녀가 외우는 주문인 '수리수리 마하수리 얍!'이란 구호를 함께 외치며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⑤ **유아들을 위한 책 찾기 놀이**

유아들에게 분류표를 가르쳐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스스로 책을 찾아보게 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을 직접 찾아보게 하는 것이 도서관 이용 교육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6~7세가 되면 간

단한 낱말은 알고 있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친숙하고 쉬운 낱말을 가진 책 이름을 찾게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다. '곰', '호랑이', '꽃', '할머니' 따위 단어는 그림책 이름 가운데 많이 들어 있다. 이러한 낱말이 포함된 책을 찾아보게 하면 아이들은 아주 흥미를 느낀다.

⑥ 이야기 들려주기와 영화 상영

이러한 프로그램과 함께 이야기 들려주기, 단편 만화영화 상영을 10분 정도 하면 1시간짜리의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무리하게 4~5세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인솔 교사 1~2명이 1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도서관교육을 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런 경우 엄마와 함께 1대1로 도서관에 오도록 유도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도서관예절이나 책보기는 생략하고, 이야기 들려주기와 단편만화영화 상영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

13 그림책 슬라이드(영상구연동화) (대상 : 유아, 초등)

1 목적

그림책 슬라이드는 책을 다른 형태로 읽어 주는 것으로 영화와 그림책 읽어주기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책 읽어주기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집중도도 높다.

예전에는 그림책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어서 환등기를 통해 책을 읽어 주거나 녹음한 것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요즘엔 책을 직접 스캐닝 하거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편집한 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영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특징

그림책을 직접 보는 것과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보는 것의 중간 단계이다. 따라서 감상하는 어린이들은 집중도와 이해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3 방법

① **책 선정** : 그림이 선명한 것, 장면전환이 뚜렷한 것, 한 장면에 글을 읽어 줄 때 10초에서 15초를 넘지 않게 분할이 가능한 것, 구어체인 것 등을 중심으로 선정

② **슬라이드 제작**

단순히 책 한 면을 찍은 뒤 한 면에 있는 내용을 읽어 주는 것으로도 책을 읽는 것보다 효과는 크다. 하지만 책을 어떻게 영상으로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작자가 그림책을 자신의 느낌에 맞춰 새롭게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이 얼마나 다른 대상자와 교감하는지도 느낄 수 있다.

③ **대본작성** : 그림책을 읽어주기 쉽게 단락을 나누어 대본을 작성

④ **촬영**

그림책을 스캐닝 하거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뒤 필요에 따라 포토샵을 이용하여 글씨를 지우거나 색 보정을 한다. 이때 그림의 작은 부분을 확대하는 클로즈 인 이나 배경 전체를 보여주는 클로즈 아웃의 영상기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앞면이나 뒷면의 그림을 가져오기도 한다.

⑤ **녹음 또는 구연**

그림만 보여주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직접 구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성우형태로 구연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가능하면 배경이 될 만한 음악도 함께 깔아 주면 슬라이드에 대한 집중도는 훨씬 높아진다.

직접 구연을 하면 대상자의 분위기에 따라 적절하게 즉흥적인 대사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어려우면 녹음을 한 뒤 상영해도 큰 문제는 없다.

14 독서교실(대상 : 초등)

1 특징

첫째, 공사립을 막론하고 어린이 독서교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참가자가 관련 책을 제대로 읽고 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서교실이 '책을 읽은 뒤'라는 전제 아래서 프로그램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서관이 독서교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면 독서교실 대상자들이 동시에 같을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책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한 참여하는 어린이 조차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책을 읽는 것은 부담이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책 읽는 부담을 주지 않고 진행하는 독서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어린이에게 책 읽는 부담을 주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마칠 때쯤이면 책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둘째, 독서교실에서 진행자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자에 머무르거나 수업 받는 어린이와 피드백이 되더라도 드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린이 스스로 전체를 진행하게 하고, 진행자는 보조자에 머물러(진행자는 수업 중 어린이가 자료를 찾을 때 수업내용과 다른 자료가 있는 곳에서 자료를 찾으려고 할 때 자료가 있는 곳 가까이 안내 해주고, 토론에서도 너무 주제와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 바로 잡아 주는 것으로 그친다) 어린이 스스로 자료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수업이 될 수 잇다.

셋째, 어린이가 책을 반드시 읽고 와야 한다는 부담이 적고, 토론식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의 배경 지식만 있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넷째, 어린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수업보다 훨씬 창의적인 수업이 진행 가능하다.

2 전제조건

프로그램 진행자는 도서관 내 장서구성 뿐만 아니라 내용적 특성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수업지도안을 짤 때 아이들의 예상 질문, 활용 가능한 자료, 도서 내용 등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3 어려운 점

어린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업 중에 서 너 번씩 자료를 찾으러 열람실을 다니기 때문에 진행이 산만할 수 있다. 교사(진행보조자)는 수업이 자신이 예상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린이들의 행동 말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지 관리하고, 고쳐 주어야 한다.

4 사례 1

① 주제 : 자유

② 수업 때마다 어린이들 스스로 진행자와 서기를 정한다.(참여자들이 순번제로 하거나, 지원자를 받아서 정하는데,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다) 진행자가 선출되면 진행자는 최초 수업목표에 있는 사례(교사 제시)를 가지고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자유의 사전적 의미부터,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사례별 의미를 찾아가며, 집중토론 거리를 정한다. 집중토론거리가 정해지면 다시 해당하는 사례를 가지고 책과 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 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토론을 거친 후 수업을 마무리 한다. 마무리 할 때는 그 동안 수업내용을 기록한 서기가 내용을 정리 확인한다.

5 사례2

① 주제 : 옛이야기

② 우리가 알고 있는 옛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어디에 관점을 맞추고 있는지도 다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원전에 가까운 이야기도 있고, 조금 고쳐 쓴 이야기도, 새로 쓴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모아서 아이들이 나눠 읽고 토론하게 한다. 진행 방식은 위와 같은데, 옛이야기라 지금은 쓰지 않는 낱말이나 시대적 배경도 함께 찾아보면서 수업이 진행 된다.

6 사례 3

① 주제 : 시

② 어린이 문학 공부에서 시 수업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시는 어린이나 어른들에게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시집 한 권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집 속에서 계절, 사물, 사건 주제별로 시를 뽑아 읽고 느낌을 토론한다. 또한 이 수업이 몇 번씩 반복되어 자료가 쌓이면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가려 뽑아 자신이 좋아하는 시 모음집도 만들 수 있다.

15 전래놀이교실(대상 : 초등)

1 목적

현대사회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는 개인적이고, 경쟁적인 놀이 문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원수 제한, 장소 제한, 잘 하는 이와 못하는 이의 뚜렷한 구분, 승자 중심의 문화 등과 같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놀이문화로 컴퓨터 게임, 축구, 야구, 농구 따위 스포츠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전래 놀이는 시간, 장소, 인원, 잘하는 이 못하는 이 등의 구분이 없다. 또한 참가인원이 홀수면 '깍두기'를 두어 모두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이면서 공동체 놀이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라져 가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로 전래놀이교실이 활용 될 수 있다.

2 준비

진행자는 혼자서 하는 것 보다 서 너 명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먼저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 놀이 방법을 기억 해 정리 해 놓는다. 놀이 방법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관련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 사이트 놀이 연구회 '놂'(http://www.nol2i.com)에 들어가면 자료를 구할 수 있다.

3 시행

혼자서 할 수 있는 놀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놀이, 계절 별로 할 수 있는 놀이 따위로 나누어 가르쳐 준 뒤, 이 기간이 지나면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하며 놀 수 있도록 한다.

16 어린이 문화공연(대상 : 어린이)

1 목적

①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어린이 문화에 대한 이해와 펼침의 장이 된다.
② 아이들이 무대에 서기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자원 활동가들이 펼쳐 보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2 프로그램 대상 : 유아에서 초등학생

3 절차 및 준비

음향기기, 슬라이드기기 등, 슬라이드 필름, 노래와 옛이야기 준비, 자원 활동가, 암막천, CD플레이어와 CD

4 시행 및 평가

① 노래 부르기 : 동요, 민요 등 음악을 듣고 배워서 함께 부름
② 옛이야기 :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줌
③ 빛 그림 보기 : 두 편을 그림책을 찍은 슬라이드를 음악과 함께 자원 활동가가 읽음
④ 부정기적으로 인형극과 음악공연을 함. 예를 들면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의 리코더 연주나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중고생들의 공연을 보기도 함

5 프로그램 사례 – 어린이 도서관 맨발 동무 (부산시 북구 화명동)

17 어린이 사서(대상 : 초등)

1 프로그램 목적

학원에 다니느라 바쁘기도 하지만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은 어린이들은 TV나 컴퓨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모들도 책 읽히는 것을 포기하고 급격하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초등 고학년들에게 도서관을 이해하고 그들을 책으로 이끄는 작업의 하나로 '어린이 사서제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어린이 사서는 봉사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도서관 이용법 등을 배우면서 어린이들 스스로가 찾는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책 안내, 어린이 서평, 자료전시, 어린 동생들에게 책 읽어 주는 일, 도서관 안내,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다른 지역의 도서관 탐방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매주 두 시간씩의 도서관 봉사시간을 통해 도서관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어렸을 대부터 봉사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프로그램의 대상 – 초등 고학년

3 활동기간 : 6개월 정도(주 2회 2시간 이상 봉사, 매월 1회 정기모임)

4 소요시간 : 1회 모임활동에 2시간 정도

5 프로그램의 진행방법

① 고학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이해가 중요하다. 따라서 모집공고가 나갈 때 미리 부모의 참여를 유도한다.
② 학부모들에게 고학년 어린이들의 학습지도와 책 읽기 지도에 대한 미니강좌를 실시함으로써 부모의 격려가 큰 자극이 되어 어린이들의 참여도와 자긍심이 무척 높아진다.

6 절차

① 기간(6개월~1년)을 정해서 활동하도록 한다. 수료 후 원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독서동아리 등으로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② 주 1회 등 정기적으로 약속된 시간에 오도록 한다. 출석체크를 하고 월 1회 또는 분기별로 자원봉사 확인서를 학교로 우송한다.
③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도서관 주최 측에서 어린이 사서 명찰과 조끼 등을 준비한다.

④ 모집공고를 내기도 하지만, 대개는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들 중에서 3학년 이상인 어린이들을 위주로 신청을 받는다. 먼저 도서관 예절을 잘 지키도록 교육하고, 스스로 책을 정리하면서 읽고 싶은 책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정기적으로 대출하여 읽도록 교육시킨다.

⑤ 첫 시간에는 신청자들에게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 사서들의 일을 소개한다. 관련 프로그램의 영상자료를 보여준 후 직접 도서관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하고 책의 선정에서부터 분류와 관리방법, 서가배치 등에 대해 알려 준 후 20~30분 정도 담당교사와 함께 책을 분류하고 정리해 보도록 한다.

⑥ 주 1회 봉사는 개인의 시간에 맞추어 시간표를 정한다. 되도록 주중에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주말로 스케줄을 조정해 준다. 봉사담당 어린이 사서는 명찰을 달고 조끼를 입고 교육담당 교사에게 그날 할 일을 지도 받도록 한다.

⑦ 책의 한 부분을 맡아 직접 정리해 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만화, 역사, 과학, 옛이야기, 우리 동화 등의 서가를 맡아 차근차근 정리해 본다.

⑧ 책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 졌다 싶으면 운영 프로그램에서 사서를 돕는 도우미로 참여시킨다. 유아들에게 책 읽어주기와 전시, 기획, 게시판 꾸미기나 대출반납의 보조도 맡겨 본다.

⑨ 활동을 끝내고 공동으로 쓰는 도서관 일기장에 느낌 한마디 등을 적게 한다. 활동한 내용과 느낌을 부담 없이 쓰도록 한다.

7 어린이 사서활동 약속 (사례)

① 도서관의 예절인 '책 나라 약속'을 잘 지키면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② 책 친구가 될 것이며 반드시 '책나라 여권'을 만들겠습니다.
③ 봉사활동에 빠지지 않고 그 내용을 잘 기록하겠습니다.
④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독서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배우겠습니다.
⑤ 어린이 사서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공부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8 주요활동 일정(6개월 과정 사례)

① 첫째 달 : 오리엔테이션 및 도서관 제대로 알기, 책 분류와 정리하는 법, 모둠

나누기와 첫인사
② 둘째 달 : 책 읽어주는 법, 좋은 책 선정 요령, 내가 좋아하는 책과 이유 말하기
③ 셋째 달 : 책 읽고 토론, 어린이사서가 추천하는 책 목록 발표
④ 넷째 달 : '도서관에서 하룻밤'행사 → 책 읽고 토론 및 독서활동, 함께 영화보기
⑤ 다섯째 달 : 다른 지역 도서관 탐방 및 문화체험
⑥ 여섯째 달 : 책 벼룩시장 및 어려운 친구 돕기 행사, 수료식

9 시행

① 100권 클럽, 독서동아리활동, 평생 도서관의 '책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② 봉사할 때마다 책을 빌려가고 반납하는 도서관문화 생활화
③ 봉사활동 점수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누적된 활동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
④ '도서관에서 하룻밤' 행사를 통해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학교가 다른 친구들과 서로 사귈 수 있는 친교의 자리가 됨.
⑤ 다른 지역 도서관탐방을 통해 다른 지역의 문화와 친구 사귀기, 도서관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눈을 키워줌.

10 평가

① 활동에 대한 알림 사항 및 공지는 도서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도 전달
②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기존의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 전환점을 가져다주고 도서관을 더욱더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게 안내
③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드를 갖는다는 기대감과 함께 더 나아가 독서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함.
④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특히 초등 저학년들에게는 행사시간이나 활동이 지루하고 벅찰 수 있으므로 연계된 프로그램 내용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재미있게 구성하도록 함.

18 독서상담(대상 : 초등, 청소년)

1 목적

독서 지진아, 부적응자, 편독자에 대한 독서흥미 유발을 통한 독서능력 향상

2 진행방법

① **준비** : 진행자는 도서관 내 있는 자료에 대한 내용이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독서상담은 일반적으로 1:1 면담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의뢰자는 대부분 부모이다. 따라서 대상자와 면담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와 면담을 통해 가정환경(부모의 가치관)이나 유아기 때 생활습관, 현재 관심 분야에 대한 파악을 한다. 상담 장소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낼 수 있도록 밀폐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조용한 공간이어야 한다.

② **내용** : 여기서 독서지진아는 또래 평균치보다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이를 말하며, 부적응자는 문장이해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단순히 책읽기를 싫어하는 이를 말한다. 또한 편독자는 특정 주제나 분야에 대한 책만 읽는 이를 말한다. 독서 상담과 독서치료의 차이는 독서 상담은 1:1로 면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는 책을 직접 찾아서 권하며 대부분 전체적인 독서 방향을 설정해 주거나 2~3회 정도 방향설정 해 줌으로써 독서 능력을 향상 시키는 반면, 독서치료는 일정기간 동안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있다.

③ **진행** : 대상자의 관심분야, 독서 능력, 심리상태를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부담이 가지 않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책을 권한다. 이때 대상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북토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지속적으로 지켜 볼 필요가 있을 때는 2~3회 정도 나누어 책을 단계별로 권하고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 여부를 파악한 뒤, 새로운 책을 권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는 독서능력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원인은 대부분 부모들에게 있으므로 부모들에게도 함께 주의사항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요구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책을 읽는데 부담을 주지 않

도록 해야 하며, 파악된 상태를 정확히 알려 줌으로써 대상자의 독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프로그램 사례 : 울산 북구 기적의 도서관

19 사전, 도감 활용법(대상 : 초등, 청소년)

1 목적

도서관에서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는 참고서비스이다.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백과사전과 국어사전 영한사전 등이 필수였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도 백과사전과 언어사전이 제공되므로 어느새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해결해 버린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전을 찾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의 한계는 인접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이 있다. 만약 내가 찾는 자료가 A라면 디지털 상에서는 그냥 A라고 친다. 그러면 A에 해당하는 자료만 뜬다. 하지만 정말 찾고자 하는 자료는 B인데 알고 있는 지식 상으로 B에 근접한 A만 알고 있기 때문에 B를 찾지 못하고 A만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터넷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 활용법을 알려 주더라도 올바른 정보를 찾는 능력도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은 사전과 도감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2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청소년까지

3 준비

이 프로그램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독서교실이나 이용자 교육 때 하는 방법이 좋다. 프로그램 진행은 국어사전, 백과사전, 도감 활용 각 1시간씩 수업을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4회로 늘이는 것도 가능하다.

4 자료

① 사전(事典), 사전(辭典), 도감(圖鑑)

② 사전의 종류 : 백과사전, 언어사전, 각종 도감, 각 사건에 대한 사전, 각 분야에 대한 사전.
③ 언어 사전(국어사전) 찾아보고 활용하기

5 시행 평가

① 어린이에게는 도서관 활용방법을 배울 수 있고, 나아가 스스로 자료 찾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훈련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사전 활용법이다.
② 사전 활용법은 무엇보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스스로 하게 만들어 준다. 이것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토대가 될 수 있다.

6 프로그램 사례 – 울산 북구 기적의 도서관

20 영어독서프로그램(대상 : 유아, 초등, 청소년)

1 대상 :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 절차 : 대상선정 → 단계별 이야기책 선정 → 책 읽어주기 → 이야기 나누기(토론) → 다양한 통합프로그램 체험하기

3 준비

① 책 선정 – 대상별 수준에 알맞은 이야기책 선정
② 주요단어 익히기 – 이야기에 나오는 주요단어
③ 주인공 및 줄거리 소개하기 – 미리 이야기의 흥미 유발
④ 통합 교육프로그램 – 다양한 활동으로 외국어와 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

4 자료

① 1단계 (영어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 – 최대한 흥미 유발. 한 두 단어가 있는

동화책으로 아이에게 그림으로 단어를 습득하게 함.

② **2단계** (2~3단어 아는 어린이) - 한두 문장이 있는 동화책으로 아이에게 통문장을 인지하도록 함.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

③ **3단계** (간단한 문장 읽는 어린이) - 내용이 간결한 동화책. 여러 문장 구조에 익숙하게 함. 스스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함.

④ **4단계** (문장 읽는 어린이) - 어휘력이 많은 동화책 선정. 앞으로의 내용을 유추하도록 하여 스스로 어휘를 습득하게 함.

⑤ **5단계** (영어동화를 쉽게 읽는 어린이) - 동화의 장르를 다양화하여 여러 분야의 내용을 접하게 하므로 영어권 문화를 익숙하게 함.

5 평가

책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어학습의 기회로만 활용하려는 부모들의 지나친 욕구가 있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영어회화에 자신이 없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프로그램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를 건네고 친근해 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영어원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책 중심의 영어듣기, 말하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강사와 영어전문강사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각 지역의 프로그램일정에 맞추어 강사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21 바깥나들이(대상 : 초등, 청소년)

1 프로그램의 목적

①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을 홍보한다.

②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도서관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③ 도서관을 찾아오기 힘든 아이들이 도서관과 도서관 사람들, 도서관 책들을 만

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④ 물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2 프로그램 대상

주 이용자층은 초등학생이지만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진행 방법

① **절차 및 준비** : 장소에 대한 준비, 예를 들면 인근의 놀이터로 장소가 정해지면 공공의 장소이니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협조를 구하는 일, 이동식 서가, 목욕통과 작은 탁자, 천막, CD플레이어와 CD, 소식지 등 도서관 안내 자료, 음료수, 걸레, 휴지통

② **자료** : 책 (그림책과 동화책 등 100권정도)

③ **시행 및 평가** : 도서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책을 읽고 또 원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책을 읽어달라고 할 어른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책 읽어 주는 자원 활동가들이 바깥나들이에서 중요하다. 많은 책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또, 더 많은 즐거움을 줄 책들이 도서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도 필요하다. 도서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서비스 가운데 대출과 반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생활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4 프로그램 사례 : 어린이 도서관 맨발 동무(부산시 북구 화명동)

22 문화답사(대상 : 초등)

1 목적

① 지역의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함

② 저소득층 아동들이 겪는 문화적인 소외로부터 벗어나게 함
③ 소득의 격차에 따른 문화적 차별을 극복, 함께 나누는 문화공동체를 이룸
④ 지역의 문화답사를 통해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게 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가꾸는 인재로 성장하게 함

2 프로그램 대상

인근 초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학교와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음)

3 프로그램 진행 방법

① **절차 및 준비** : 동사무소와 초등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층 학생을 정한다. 인근의 문화지를 찾아서 관장과 사서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답사를 다녀온다.

② **자료** : 답사에 대한 안내지

③ **시행 및 평가** : 해설자의 안내로 학생들에게 지역문화를 알린다.

4 프로그램 사례

동화랑 놀자 어린이 도서관 (부산시 부암3동)

23 지역 역사 체험 활동(대상 : 청소년)

1 목적

① 문화예술과 결합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통해 역사인식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배경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함
② 딱딱한 암기식 역사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적 장르를 통해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역사를 배워가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지향함.
③ 매월 1회의 정기적인 문화역사체험활동으로 청소년의 문화적 안목과 문화생활의 질 향상

2 프로그램 진행방법

① 인근 방문지를 정하여 장소를 섭외
② 약속된 날짜에 방문 장소를 찾아가서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

3 프로그램 사례

대구 청소년문화센터 우리세상

24 영화감상 및 토론(대상 : 청소년)

1 프로그램 목적

①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 같이 영화를 보고 얘기를 나누는 공간
② 전문 강사가 영화와 함께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며, 보다 깊은 질문과 사색으로 안내
③ 영화와 삶을 연관시켜 영화 분석을 통해 문화와 사회와 인간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논리적 사고와 표현, 가치관 형성에도 기여
④ 영화를 보고, 토론하고, 글을 써가는 과정 속에서 영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

2 프로그램 진행방법

① 모임일시 : 주 1회 또는 격주 1회 저녁 시간 활용
② 모임장소 : 가까운 영화상영관 섭외
③ 강사 :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
④ 회원신청을 통해 회원들의 회비로 진행 및 절차

25 작가와의 대화(대상 : 청소년, 성인)

1 프로그램 목적

① 독서와 토론 활동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② 청소년기의 지적, 정서적 발달 도모

③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

2 프로그램 진행방법

① **강사 섭외** : 청소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정해 편지를 보내는 등 방법으로 강사를 섭외하고 강좌를 들음.

② **모임 일시** : 월 1회 정도가 적당함. 예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③ **토론방법** : 매월 선정된 도서를 읽고 난 후 사회자의 주도하에 작가, 인물, 명제, 사회토론 등을 내용으로 토론함

(3) 프로그램 사례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26 문화기행(역사기행, 문학기행)(대상 : 청소년, 성인)

1 프로그램의 목적

① 지역의 향토 유적 및 역사 알기

② 문화유적, 역사적 의미가 깃들인 곳, 문학가의 생가나 작품의 무대를 찾아 간다. 우리 문화와 역사, 문학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다.

2 프로그램 진행 방법

① 안내자 섭외

② 유적지나 답사장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강사를 섭외한다.

③ 방문하려는 장소의 문화예술단체, 환경단체 등에 안내를 부탁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문화유적 해설사를 섭외하면 잘 안내해준다. 안내자와 함께 답사코스를 짜면 된다.

④ 교통수단 예약

문화기행 때는 여러 장소를 돌아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는 어렵다. 관광버스를 예약하도록 한다.

⑤ 점심준비

○ 식당을 미리 예약하거나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한다.
○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기 쉽고, 겨울에는 너무 차갑기 때문에 식당을 예약하여 점심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각자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할 수도 있다.

⑥ 행사진행
○ 전문안내자 외에도 도서관 내부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최소 2명 정도가 행사 진행요원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 행사당일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

3 프로그램 사례

① 새벗도서관은 문화기행, 문학기행, 역사문화기행 등 다양한 주제로 다녀왔다.
② 대구서부도서관은 문학기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27 아빠랑 동화 읽기(대상 : 성인)

1 목적

육아에서 뒷전이기 쉬운 아빠들이 아이들의 책을 함께 보며 자녀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적극 동참하는 기회를 갖는다.

2 프로그램 진행방법

① 유초등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도서관 게시판 등에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대상자를 모은다.
② 도서관 사서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부터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3 프로그램 사례

인천 주안도서관, 울산 남부도서관

28 시사 독서토론반(대상 : 성인)

1 프로그램 목적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사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사회와 조화되는 지역여론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심층적 독서활동의 필요성을 제고한다.

2 프로그램 진행방법

① **임시대표** - 모임을 제안한 회원 또는 도서관 상근자가 모임의 임시대표로 활동한다. 일반 이용자가 임시대표를 맡을 경우, 도서관 활동가가 기본적인 모듬활동 기법을 교육한다.

② **모임홍보 및 회원모집**

도서관 게시판과 회지에 공지하고, 지역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부한다. 도서관 상근자는 이용자의 독서경향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한다.

③ **대상선정 및 예비모임**

모임활동의 시간과 방향에 대해 임시대표가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신청인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연령대, 성별, 연락처, 주요 관심사)을 확보한다. 모임을 원활히 하기 위해 10명 내외로 하여, 매회 최소한의 참석인원 4~5명을 담보한다.

④ **활동**

주1회 2~3시간, 도서관에서 토론하고 뒤풀이를 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기본적인 토론주제를 매주 발간되는 시사주간지의 중요 기사(커버스토리)로 한다. 모임의 대표는 토론주제와 연관성 있는 도서를 참고자료로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⑤ **효과**

시사주간지 커버스토리에서 사회문제를 다루는 주제가 다양한 만큼, 모임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과 함께 심화된 교양독서를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사회문제 토론에서 늘 등장하는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참여의식을 높여 마을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3) 프로그램 사례

대구새벗도서관 시사토론반

29 여성 독서토론반(대상 : 성인)

1 목적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절반의 희망을 책 속에서 확인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삶에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2 프로그램 준비

① **모임 대표** : 지역의 여성단체 활동가가 모임의 중심이 된다.

② **홍보 및 회원모집** - 도서관 게시판과 회지에 공지하고, 지역언론에 보도자료를 배부한다. 도서관 상근자는 성인 여성 이용자의 이용태도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③ **대상선정 및 예비모임**

모임활동의 시간과 방향에 대해 임시대표가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신청인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연령대, 성별, 연락처, 주요 관심사)을 확보한다.

④ **활동**

주1회 3시간, 기본도서 발제, 토의, 글쓰기 및 수다떨기
독서활동-주요 기본도서
여성영화 함께 보기

글쓰기와 회지 만들기

⑤ **효과**

여성의 관점에서 서술된 책과 여성의 관점에서 책을 읽는 훈련을 통해 오랜 기간 사람살이 전반에 걸쳐 각인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억눌린 자아를 극복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여성단체와 지역도서관과의 연대활동이 많아질 뿐 아니라, 도서관 이용률도 제고된다.

3 프로그램 사례 : 대구새벗도서관 여성반 – 삶그리기 모임

30 지역사 강좌 (대상 : 청소년, 성인)

1 목적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역사는 중앙과 정치 중심의 역사였고, 상대적으로 지역사의 가치는 소홀히 되어 왔다. 그러나 각 지방의 수많은 문화들이 어우러져 나라를 이루고 역사가 되었다. 때문에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온 이야기 또한 훌륭한 역사가 될 수 있다. 특히 바로 이웃에서 역사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고, 유적을 찾을 수 있기에 훨씬 흥미롭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도서관 이용 비율이 낮은 성인 남성을 도서관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

2 진행 방법

① **절차 및 준비** : 강사를 섭외하고 내용을 준비한다. 지역의 향토사학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근·현대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발굴하여 강의를 부탁한다. 전문적 내용이 아니어도 된다. 특히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살아온 이야기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연단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 문화원을 통하면 향토 유학자들도 섭외할 수 있다.

② **홍보** : 지역 언론사(방송국, 신문사, 생활정보지) 보도자료 배포

③ **자료 준비** : 자료집을 만들 수 있으면 좋다. 하지만 원고를 쓸 수 없는 강사들

을 위해서는 강의만 부탁 한 뒤 진행자가 이야기를 받아 적어 행사가 끝나고 자료집을 만들어도 된다.

④ **시행 평가** : 전체적으로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아울러도 좋고, 더 좋은 것은 특정 주제를 정한 뒤 그 주제에 맞추어 계획을 짜면 더욱 깊이 있는 강좌가 된다.

3 프로그램 사례

① 마산 책사랑 지역사 강좌(1996년 ~ 1997년 2회)
② 내용 : 회당 4회 정도 강의가 진행 되었다. 강의 내용으로는 고대사 속의 마산, 마산 지역 근 현대 도시형성과정, 1930년대 마산의 사회주의 운동, 3.15 마산의거 등의 내용으로 지역 연구자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으로 진행 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해서 직접 현장 답사회도 가졌다.
③ 참여인원은 참가비를 1인당 5,000원을 받아 20명 정도 수강했다.

31 독서교육 강좌(대상 : 성인)

1 목적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들은 주부와 어린이가 대부분을 차지 한다. 특히 작은 도서관은 이들의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주 이용자인 주부들에게 올바른 독서교육정보는 중요한 관심거리다. 따라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다.

2 진행 방법

① **준비** : 강의 내용과 강의 계획을 작성한다. 기본적으로 그림책 강좌, 동화책 강좌, 글쓰기 강좌, 어린이 문화에 대한 이해 에 관한 내용으로 주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목을 정하고 이에 맞는 강사를 섭외한다.

② **홍보 및 모집** : 지역 아파트 게시판, 생활정보지,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③ **시행** : 강좌 수강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이들도 있으므로 따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을 확보 하는 것이 좋다.

④ **후속 활동** : 강좌 마지막 날 수강자 의견을 물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로 만드는 것이 좋다.

3 사례 – 마산 책사랑 부모독서교육 강좌 '내 아이와 함께 여는 책 세상(1998)'

처음 '그림책 보는 법', '우리 동화 바로 읽기', '노래로 읽는 아이들 마음', '어린이 책과 독서교육' 등 4강좌를 진행 한 후 희망자에 한하여 동아리를 모집했다. 이 동아리는 마산 창원 동화 읽는 어른 이 되었고, 이후 이 같은 강좌가 창원지역 마을 도서관으로 확산 되었다.

32 어린이책 읽는 어른(대상 : 성인)

1 역사

1990년대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지역 모임인 '동화 읽는 어른'이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서 모임을 가진 것이 시작이다. 일부 개인 가정이나 복지관, 서점에서 모임을 한 곳도 있으나 지금은 대부분 도서관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조직과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활동하는 모임도 많다.

2 목적

어른들이 어린이책을 읽는 목적은 대부분 자녀 독서교육을 위해서이다. 또한, 어린이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일반 독서회보다 교육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활용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3 진행 방법

① **절차 및 준비** : 일반 독서회와 달리 어린이책을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전제조

건이 필요하다. 즉 어린이책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린이책과 그림책을 어린이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독서 교육 강좌를 통해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 뒤 동아리를 모집 하는 것이 좋다.

② **진행** : 한 동아리에 적정 인원은 8~10명이 적당하다. 이 인원이 넘을 경우는 동아리를 나누는 것이 좋다. 진행은 자유롭게 토론식으로 해도 좋고, 발제자와 진행자를 정해서 해도 된다. 개인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읽어주고 난 뒤 반응을 서로 나누면서 좀 더 나은 책 읽기가 가능하다.

③ **평가** : 어린이책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성인책과 다른 색다른 맛도 찾을 수 있어, 성인들 스스로 어린이책을 즐기는 이들도 생겨난다.

4 사례

전국 각지 '동화 읽는 어른'

33 독서치료모임(대상 : 성인)

1 목적

독서회에서 좀 더 나아간 형태이다. 최근 들어 전국 각지의 연구단체에서 많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운영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집중적인 책 읽기를 통해 치유하는데 있다.

2 진행방법

① **준비** :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실행할 인력이 필요하다. 도서관 내부인력이 직접 진행자가 될 수도 있고,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 독서치료와 같은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내부인력일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진행자는 가능한 먼저 독서를 통해 치유한 경험이 있는 경험자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진행자는 참가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부들을 대상

으로 할 경우는 진행자 또한 주부이거나 최소한 여성이어야 한다. 더불어 참가자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② **진행** : 성장의 아픔, 어른들의 무지와 몰이해, 성장의 아픔 따위 일정한 주제를 정해 놓고, 관련 된 도서를 함께 읽고, 느낌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한다. 참가 인원은 참가자들 골고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8명 안팎이 적당하며, 프로그램을 짜기에 따라 8주에서 15주 정도로 계획이 가능하다.

③ 시행 평가 : 몇 차례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해서 마음의 문제가 모두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대상 도서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해당하는 자아 증세를 찾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3 프로그램 사례

전국 각 도서관 독서치료 모임

34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우리 문화체험(대상 : 특수계층(결혼 이민자))

1 목적

농어촌 사회의 급격한 붕괴로 인해 '단일민족'이라는 의미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들은 농어촌 사회를 중심으로 결혼 이민자들이 급속도로 유입됨에 따라 이들은 우리 사회 새로운 빈곤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결혼 이민자들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부터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결혼 이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우리 사회에 부적응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이 어려워하는 가장 큰 것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다.

이런 혼란을 빠른 기간에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 습득 기회 제공과 한

글교육을 통한 기초적인 문제 해결이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결혼이민자들에게 일상생활 안정과 자녀교육의 부담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진행방법

① **준비** :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를 위한 복지 센터와 지역 문화 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문 강사를 섭외. 베이비시터 병행으로 교육 참여자에 대한 육아 문제 해소, 문화체험(다양한 먹거리와 전통문화 실제 체험)

② **홍보방법** : 시청 및 도서관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홍보공문 발송, 외국인 근로자 센터, 국제 가정 모임 공문 발송, 지방지 게재, 현수막 제작.

③ **시행** : 대학 한국어 학당, 유아들을 위한 한글 기초교육교재 등을 활용하여 한글반을 진행하고, 우리문화 체험반은 지역 문화인들의 협조를 받아 시행한다.

3 프로그램 사례

남양주 진건도서관

35 이주 노동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대상 : 특수계층(이주 노동자))

1 목적

결혼이민자와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사회 새로운 사회계층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국땅인 우리나라에서 고향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정보 민주화의 첨병이라고 자부해 온 도서관은 이 문제에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2 진행방법

① **준비** : 여러 나라 책을 입수하기 위해 각 나라 대사관, 문화원, 한글학교, 외국소재 한인회 등 여러 기관과 단체를 찾아다니거나 연락하여 도움을 구함. 이들 지역 자료들은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해당지역 여행자들에게 현지어 책 한 두 권씩을 구입해서 기부하는 형태로 자료 준비.

② 내용 : 우리나라에 온 이주 노동자들 중에는 고학력자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하루에 12시간이 넘는 노동 강도와 보따리 하나 들고 일터를 옮겨 다녀야 하는 부초 같은 삶은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책 한 권 손에 잡을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위한 서가를 비치하고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네팔 등 여러 나라 책과 한국문화를 잘 알 수 있는 도서를 비치한다. 더불어 도서관이란 딱딱하고 정형화 된 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북카페 분위기를 조성한다.

3 프로그램 사례

용인 느티나무 도서관의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작은느티나무문고, 이주민을 위한 꼬마도서관

36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대상 : 어린이, 노인)

1 의의

급속하게 진행 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한 핵가족화 시대에 노인의 권위는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엔 정년퇴직한 이들은 한가롭게 여가를 즐기며 여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는 시기였으나,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된 요즘엔 젊은이들 속에도 끼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집에서 소일거리나 하며 지내는 시대가 아니다. 이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고 아직 몸이 건강한 노인들에게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괴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2 목적

노인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여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린이들과 시간도 보내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보람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진행 방법

① **준비** : 노인들에게 동화구연법과 책 고르는 법을 전문 기관을 통하거나 도서관 직원들이 교육 한다.

② **내용** : 노인들이 알고 있는 전설이나 옛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책을 읽고 들려줄만한 이야기를 외워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인형을 가지고 간단한 연극을 하기도 한다.

③ **시행 및 평가** : 노인들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는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사회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노인들에게 자신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4 프로그램 사례

① **제천 기적의 도서관** : 제천 기적의 도서관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체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② **울산 북구 기적의 도서관** : 울산 북구 기적의 도서관은 울산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은 할머니가 매주 토요일 나와서 30분 정도 동화구연을 하고 율동을 가르쳐 준다. 복지관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므로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한다.

37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우리 동네 이야기(대상 : 어린이, 노인)

1 목적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잘 모르는 지명이나, 지역에 대한 유래, 근 현대사 속의 사건 등을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지명 유래나 전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며, 특히 굴곡 많은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책이 아닌 생생한 증언을 통해 듣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노인이나, 듣는 젊은이들이 교감을 나누기에 충분하다.

2 대상

어린이와 노인(전설이나, 지명 유래에 잘 알고 있는 노학자 또는, 현대사 속의 사건 관련자)

3 진행 방법

① **준비** : 도서관에서는 향토 유림이나, 현대사 사건 관련자(일제 징용자, 한국 전쟁 참전 경험자, 4.19 의거 참가자 등)를 섭외한다. 이야기 진행자는 노인이지만 대부분 수강자들은 젊은이나 청소년들이다. 이야기를 진행하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 **내용** : 일제 강제 징용 이야기, 해방 후 한국 전쟁의 사회 혼란 속에 있었던 사건들, 우리 동네 지명, 지역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젊은이들에게 들려준다.

③ **시행 및 평가** : 프로그램 진행 중에 진행자가 개인의 감정에 북받쳐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를 대비하여 진행자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서관 관계자들은 미리 이야기를 듣고 수강자들에게 끊어진 이야기를 내용을 부연 설명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수강자와 진행자가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4 프로그램 사례

1990년대 중반 마산 책사랑

38 할아버지 할머니 풍물 민속 프로그램(대상 : 노인)

1 목적

① 노인들에게 스스로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② 젊은이보다 더 익숙한 풍물 가락, 민속 공예품, 전래 놀이, 민속 풍속을 익히고, 일정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주변 행사에서 공연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

람을 찾기 위한 것이다.

2 진행방법

① **준비** : 풍물 가락, 민속놀이, 민속 풍속, 민속 공예를 잘 알거나, 할 줄 아는 노인들이 모르는 노인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며, 대상자 가운데 잘 모르는 분야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한다.

② **특징** : 최초 교육대상자는 노인들이지만, 목적은 이들이 여기서 배운 것을 지역 사회에 봉사를 하거나, 다시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봉사활동이 주목적이다.

③ **평가** : 노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활력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 사회에 전래 문화를 젊은 세대에 전수함으로써 세대끼리 소통할 수 있게 한다.

3 프로그램 사례 – 제천 기적의 도서관

이 프로그램은 넓은 의미로 도서관보다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풍물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다.

1996~1997경 창원지역 마을 도서관 운동 단체인 경남정보사회 연구소에서 '아리랑 봉사단'이란 노인 봉사 단체가 2년 정도 활동한 적이 있다. 이 봉사단의 특징은 도서관에서는 필요한 장비, 비품, 장소 지원만 하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은 모두 노인들이 했다. 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해체 되었다. 이후 연구소 담당 실무자도 그만두면서 완전히 명맥이 끊어졌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보고서

(작은도서관 총서1) 국립중앙도서관 편저. 2006.『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참고자료 : 건축도면』.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작은도서관 총서2)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2006.『작은도서관 운영사례 :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작은도서관 총서3) 순천기적의도서관. 2006.『작은도서관 운영사례 : 순천기적의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작은도서관 총서4) 순천시 작은도서관. 2006.『작은도서관 운영사례 : 순천시 작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작은도서관 총서5) 어린이와도서관 편저. 2006.『작은도서관 운영사례 : (사)어린이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작은도서관 총서6) 부천시·부천시작은도서관협의회 공저. 2007.『작은도서관 운영사례 : 부천시 작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작은도서관 총서7) 설문대어린이도서관.『작은도서관 운영사례 :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강대훈. 1990.『한국도서관운동론』. 광주.

국립중앙도서관. 2005.「국립중앙도서관 2010」.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편. 2006.「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자료집」(2006. 8. 25,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국립중앙도서관 편. 2007.「열린정책세미나 자료집-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2007. 6. 25,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국립중앙도서관·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편. 2007.「작은도서관 워크숍 자료집」(2007.9.11~12, 서울 올림픽파크텔).

김세훈 외. 2006.「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국립중앙도서관.

김정근 외. 2007.『독서치료 사례연구』. 한울.

남영준 외. 2006.「작은도서관(문고 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다케우치 노리요시 저; 도서관운동연구회 역. 2002.『우라야스 도서관 이야기』. 한울.
大澤正雄 저; 류현숙 역. 2003.『공립도서관의 경영』. 한국도서관협회.
맥케이브, 로널드 B. 저; 오지은 역. 2006.『도서관, 세상을 바꾸는 힘』. 이채.
문화관광부. 2004.「문화비전21 : 창의한국」. 문화관광부.
박영숙. 2006.『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 알마.
벤추렐라, 카렌 M. 편; 도서관운동연구회 역. 2002.『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한울.
설리반, 마이클 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역. 2007.『어린이 서비스의 기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스가야 아키코 저, 이진영·이기숙 공역. 2004.『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지식여행.
시스, 주디스 A. 저; 이우정·박수희·김태훈 공역. 2005.『눈에 띄는 도서관마케팅』. 이채.
양재한. 2000.『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태일사.
이연옥. 2002.『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한국도서관협회.
이용남 외. 2001.『새마을문고운동40년사』. 새마을문고중앙회.
이현. 2005.『기적의 도서관 학습법』. 화니북스.
황금숙 외. 2007.「독서교실 운영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논문 & 글

김영기. 1993.「도서원 현상을 통해본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영석. 2005. "'도서관의 친구'에 대한 고찰 : 도서관도 이제 친구가 필요하다".《한국문헌정보학회지》제39권 제1호, 279-294쪽.
_____. 2007.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 연구 : 영국의 작은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1호, 29-48쪽.
박미영. 2007.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독서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 315-339쪽.
박상희. 2007.「주민자치센터 문고의 현단계와 발전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신남희. 2007.「새벗도서관 이야기」.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윤정옥. 2007.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진흥활동 : 다른 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 165-184쪽.
이용남. 2006.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 353-372쪽.
이용재. 2005. "부산북스타트운동의 전개양상과 발전 방안 : 국내외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지평과 관련하여". 《민족문화연구》 제25집, 429-460쪽.
_____. 2005. "「 한 권, 하나의 순천」 효과적인 추진방안". 「책읽는 순천 심포지움」, 7-27쪽.
_____. 2006. "한국 독서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7권 제1호, 5-25쪽.
_____. 2006. "한국 도서관운동과 어린이도서관". 「부산 지역 어린이도서관 설립과 운영방향에 관한 전국 순회 공청회」, 47-60쪽.
_____. 2006. "책 읽는 서울, 미래를 여는 동력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운동을 중심으로". 「2006년도 서울시 공공도서관협의회 세미나자료집」, 3-12쪽.
_____. 2006. "문화프로그램 기획". 「문고운영(자원봉사)과정 Ⅰ」(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교재), 91-99쪽.
_____. 2007. "작은도서관의 비전과 역할 :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차원에서". 「2007년도 작은도서관 종사자 연찬회 자료집」, 7-24쪽.
이진우. 2006.「작은도서관의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정정식. 1994. "작은도서관운동을 돌아보며". 《도서관문화》 제35권 제3호, 2-3쪽.
최준화. 2007.「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현단계와 발전전략」.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홍미선. 2006.「김해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도서관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Walton, Susan P. 2001. "Programming in Rural and Small Libraries : An Overview and Discussion". *Rural Libraries*, Vol. 21, No.2, pp.7-23.

웹사이트

http://www.nl.go.kr/sml/ (작은도서관 공식 홈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운영)

http://www.bookreader.or.kr/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http://www.onebook.or.kr/ (한국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공식 홈페이지)

http://www.webjunction.org/ (An Online Community for Library Staff)

http://arsl.clarion.edu/ (Association of Rural & Small Libraries)

독서 · 문화 프로그램 사진

울산북구 기적의도서관
그림책포스터

울산북구 기적의도서관
그림책원화전시회

울산북구 기적의도서관
그림책원화전시회

제주 기적의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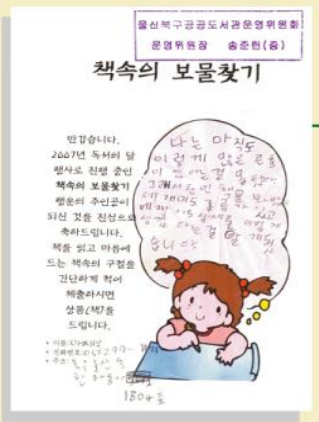
그림책포스터

부천 행복한도서관

코스튬플레이

부천 행복한도서관

코스튬플레이



울산북구 기적의도서관

책속의보물찾기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코스튬플레이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소식지

창원 대방마을도서관

소식지

창원 대방마을도서관

역사체험

마산 내서도서관

풀꽃나들이

부천지역 작은도서관협의회

풀꽃나들이

울산북구 기적의도서관

북스타트

울산북구 기적의도서관

북스타트

진해 기적의도서관

북스타트플러스

청주 기적의도서관

엄마랑 아기랑

청주 기적의도서관

엄마랑 아기랑

고양 숲속작은도서관

그림책읽어주기

부천지역
작은도서관협의회

그림책읽어주기

울산북구 기적의도서관

그림책읽어주기

부천 소새울도서관

표현놀이

울산북구
기적의도서관

유아단체견학

울산북구 기적의도서관

유아단체견학

제주 기적의도서관

그림책슬라이드

대전 선배어린이도서관

독서교실

부천 행복한도서관

독서교실

울산북구 기적의도서관

독서교실

부천 행복한도서관

전래놀이

부천지역
작은도서관협의회

전래놀이

금산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사서

진해 기적의도서관

어린이사서

부천지역
작은도서관협의회

영어독서

진해 기적의도서관

영어독서

진해 기적의도서관

영어독서

금산 기적의 도서관

문화답사

서울 노원정보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부천지역
작은도서관협의회
작가와의 만남

울산북구 기적의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부천지역 작은도서관협의회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우리문화체험

진해 기적의도서관

할머니가들려주는 옛이야기

진해 기적의도서관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제천 기적의도서관
우리동네이야기

제천 기적의도서관
풍물민속

제천 기적의도서관
풍물민속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초판 인쇄 : 2007. 11.
초판 발행 : 2007. 11.

펴 낸 이 : 국립중앙도서관(작은도서관진흥팀)
연구수행기관 :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연구책임자 이용재
공동연구원 김영기
연구보조원 최진욱, 신남희,
황은주, 최준화, 최민련

인 쇄 : 대진문화사 (☎ 051-518-9480)

〈비매품〉

ⓒ국립중앙도서관 2007
ISBN 978-89-7383-231-6 93020

이 보고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가 수행한 연구보고서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